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06 년 2월

미술교육 석사 학위 논문

중등미술 교육에서의 사군자의 효율적
지도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문 은 경

중등미술 교육에서의 사군자의 효율적
지도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fficient Teaching Method of *Sagunja* in
Secondary Art Education

2006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 교육 전공

문 은 경

중등미술 교육에서의 사군자의 효율적 지도방안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김 대 원

이 논문을 미술 교육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06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 교육 전공

문 은 경

문 은 경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합니다.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양 계 남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 종 경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 대 원 인

2005 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ABSTRACT

국문초록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1
-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2

II 이론적 배경

- 1. 문인화의 개념.....4
- 2. 사군자의 정의와 역사.....5

III 중등미술의 사군자 교과지도 적용방안

- 1. 7차 교육과정에서의 전통미술.....14
- 2. 전통미술 적용방안.....15
- 3. 교과서 문인화 단원 분석.....17
- 4. 효과적인 개선방안.....23

IV 사군자의 교수-학습의 실제

- 1. 지도 시 유의사항.....35
- 2. 한국화 재료의 이해.....35
- 3. 사군자의 표현 방법.....38
- 4. 교수_학습지도안.....47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51
2. 제언.....	52

참고문헌.....	52
-----------	----

표목차

부록

표 목 차

<표 1> 출판사별 중학교 미술교과서.....	16
<표 2> 각 출판사에 따른 문인화와 관련된 단원과 내용조사.....	17
<표 3> 제 7차 중학교 미술교육의 총괄목표와 하위목표.....	21
<표 4> 통합형태의 수업내용.....	30
<표 5> 중학교 지도방법.....	31
<표 6> 고등학교 지도방법.....	33
<표 7> 붓의 사용법.....	39
<표 8> 기본 기법 지도.....	39
<표 9> 조형요소 표현하기.....	40
<표 10> 매화 그리기.....	40
<표 11> 난 그리기.....	41
<표 12> 국화 그리기.....	43
<표 13> 대나무 그리기.....	46
<표 14> 교수-학습지도안.....	48

ABSTRACT

A Study on Efficient Teaching Method of *Sagunja* in
Secondary Art Education

by Moon Eun-Kyung
Advisor : Prof. Kim Dae-Won
Dept. of Art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Research of educational problems is inevitable and ineluctable task in modern society that society is rapidly changing, knowledge is explosively increased and standard of value is frequently changing.

Since need of art is in desire for enjoying beautiful and rich life by man, art education should be emphasized to help man's growth and development, develop man's dynamic social life and cope with changing social phenomenon.

But, art education has showed biased aspect of western painting rather than focusing on traditional painting. In particular, practice education of Korean painting remains fragmental completion of curriculum and learning materials to be guidance

and textbooks are insufficient to teach *Sagunja* to students. Therefore, this study is conducted to give guidance of *Sagunja* that we can learn tradition of Korean painting.

Muninhwa is the method of personality training and it has the same vein as orientation of today's art education for making the whole man. When it is said that developing man who can have liberal thought through art education is just goal of art education, mentality of *Muninhwa* is the current goal of art education.

First, general concept of *Muninhwa* and definition of *Sagunja* are summarized, several literatures and references related to art textbook of middle school in the 7th curriculum are compared and analyzed and how to teach *Sagunja* for students and the range of *Saguna* in art subject of middle school are sought.

Accordingly, this study is to hand down and develop Korean traditional spirit through *Muninhwa* education and apply it to educational field as the means of developing students' good personality and emotional education.

국문 초록

오늘날과 같이 사회가 급변하고 지식이 폭증하면서 가치의 기준이 자주변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교육문제의 연구가 필연적이고 당위적인 과제가 아닐 수가 없다.

미술의 필요성은 인간이 아름답고 윤택한 삶을 영위하려는데 있으므로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도와주며 정적이 아닌 역동적인 인간의 생활을 사회적으로 발달시키기 위해 변해가는 사회현상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미술 교육을 강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미술교육은 전통회화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서구적인 회화에 편중된 양상을 보여 왔다. 특히 한국화 실기교육은 교과단원의 단편적 이수에 그치고 있는 실정으로 실기지도에 임하려 해도 실기지도에 임하기에는 불충분한 교과서와 지도에 지침이 될 수 있는 학습 자료가 빈약한 실정으로 학생들에게 사군자의 전통정신과 기법을 익히게 하기에는 수업여건이 조성되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한국화 중 우리의 전통을 알 수 있는 사군자의 실기지도를 위한 지도방안의 필요를 느껴 본 연구를 하게 되었다.

즉, 문인화는 단순한 기능이 아닌 인격 수양의 방법이다. 흥중의 뜻을 나타내는 수단이었다고 할 수 있기에 오늘날 미술교육이 지향하고 있는 전인적 인간교육과 상통할 수 있다. 결국 미술교육을 통하여 자유로운 사고로 이를 향유할 수 있는 인간으로 기르는 것이 오늘날의 교육목표라면 문인화의 정신성은 바로 오늘날 추구하는 미술교육 목표일 것이다.

먼저 일반적인 문인화의 개념과 사군자의 정의를 정리하였으며, 현행 교육과정의 중학교 미술교과서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문헌과 참고문헌을 비교분석하여 중학교 미술과목에 사군자의 범위와 학생들에게 필요한 사군자의 실기 지도 방법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연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인화 교육을 통하여 우리의 전통정신을 계승하여 발전시키고 학생들의 인성과 정서 교육 수단으로 교육현장에서 개발하여지기를 바람으로 연구하게 되었다.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새로운 재료와 조형 실험의 기법에 밀려 우리 전통 미술에 대한 관심이 거의 사라진 요즘, 우리 미술 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길러 주어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미술 문화 창조에 기여하는데 본 연구는 그 의미를 두고 있다. 사군자에 대한 노력은 계속 이루어지긴 하나 현직교사 중 한국화의 전공자가 드물고 입시 위주, 재료 사용법의 미숙, 자신감의 부족, 서양화 중심으로 인한 탓에 실제로는 개선되지 않는 형편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 고유의 전통으로부터 실마리를 찾으려는 노력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¹⁾

미술교육은 전인적인 인간 형성을 위한 미적 정서 함양에 있는 것이다. 즉 조형적인 활동을 통해 미의식을 심화하고 미적 감동을 높게 하며 정서를 순화해 나아가 수 있도록 해준다, 시각적 경험에 의하여 미적 정서를 기르고 미적 가치관을 확립하며, 나아가 원만한 인간 형성을 도모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술과의 목표는 “미술 활동을 통하여 표현 및 감상 능력을 기르고 창의력을 개발하여 심미적인 태도를 함양 한다”이다. 더 나아가 우리의 전통 미술을 이해하고 자부심을 가지며, 우리 전통 문화의 유산을 이어 받아 전통 미술의 맥락을 찾는데 있다고 하겠다. 최근 미술교육은 근대의식과 미술의 순수성의 강력한 영향을 받고 있어, 우리의 전통예술을 지키고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시도가 교육과정에 반영되고 있다. 서양화 위주의 수업을 막기 위해 우리 것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우리는 서양미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의 전통적인 미술에 대해서는 관심과 노력이 부족하다. 또한 요즘 학생들의 작품을 보면 대부분 서양화에 치우쳐 있는 반면에 우리의 전통미가 담긴 한국화에 관심을 두고 있는 학생은 극히 드문 실정이다. 서양인들이 예술로 생각하는 동양의 그림을 오히려 우리 편에서 경시하는 점을 고쳐야 할 것이다.

註 1) ④김은경, 『새로운 미술교육 개선방안 연구』. 서울: 상명여대 학생 생활연구소

현행 교육과정은 우리나라 전통 미술의 이해는 물론 각 학교 실정에 맞도록 지역 사회의 전통 미술 영역도 지도하여 우리 전통 미술의 내용에 대해 더욱 그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미술과 교육과정에서 중시하는 교육목표에 적합한 한국화 교육 중 사군자를 중학교 미술 교과서를 문제점을 파악하고 미흡하나, 지도내용의 개선방안을 표현하고자 시도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현행 교육과정에 발맞춰 사군자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더욱 필요하기에 사군자 교육의 현황과 지도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았다. 현재 중학교 미술교육에서 사군자 교육은 교과외의 단편적인 이수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고, 외래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학생들은 우리 전통 미술 문화에 대하여 경시하거나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경향마저 있다.²⁾ 따라서 본 연구는 사군자 그리기 지도를 통하여 사군자에 대한 미적 가치를 발견하고, 다양한 작품 감상과 표현 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미적 정서를 함양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지도 방법으로는 문헌 연구와 더불어 연구 적용 대상은 중학교 학생으로 한다. 보통 사군자 하면 붓의 운용 즉, 용필을 생각하여 어렵고 접근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 설명하고 재료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용필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새로운 교과과정에 발맞추어 사군자를 접근하는 방식의 변화를 일깨워야 하고, 많은 관심과 노력이 주어짐으로 사군자의 발전을 도모함에 있다.

본 연구의 범위를 중학교 미술 교과서를 중심으로 제한 연구하였다. 중학교 미술 교육에 있어서 사군자의 영역이 너무 적고, 아직까지 사군자의 내용을 다루는 수묵화와 먹, 화선지를 이용한 것만이 한국적인 특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며

註 2) ④김 정, 『미술교육 역할이 한국 전통미 인식에 끼친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조형교육, 제5집. 서울: 한국조형교육학회, 1989.

로 우리나라 일반 회화의 특성을 찾아보고자 중학교 미술 교과서에 편성된 교과목에 실린 내용을 분석하였다.

미술 교과서는 김인정 교과서에 속하며 그 문제점 역시 다른 영역 교과서와 마찬가지로이다. 오히려 주체적인 입장이 아닌 서구 지향의 식민성은 미술교과서의 시각적 영향력에 있음을 감안할 때 더욱 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등학교 미술 교과서에서 오류가 대단히 많다는 지적도 이미 나와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선 미술 교과서를 분석한다는 일은 미술 교육문제의 전체적인 틀 속에서 작은 일부이긴 하지만 그 작은 부분을 통하여 미술 교육이 안고 있는 모순들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일이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먼저 본 연구의 기준들을 세우기 위하여 각종의 문헌들을 기초로 삼았다. 또한 세부적 사항들을 실천하기 위한 작업으로 기존의 선행되어진 연구서 및 논문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본 연구의 제한적 요소를 가미하는 방식으로 본고를 연구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문인화의 개념

문인화란 무엇인가. '문인의 성질을 띤 그림, 문인의 취미를 담은 그림, 문인의 감상이 많이 나타난 그림, 정신을 무겁게 여기고 형식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림, 문인의 인품과 학문 및 사상 등이 보이고 그의 재정(才情)³⁾이 드러난 그림, 비슷한 형태로써 참다운 정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이형사신 그림'이라 정의 할 수 있다.⁴⁾

중국의 문인화가이자 미술가인 진형격은 '문인화는 기이한 것이 아니라 문인의 감성을 발휘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정의 내리고는 문인화의 요소 가운데 첫째는 인품이고, 둘째는 학문이며, 셋째는 재정이고, 넷째는 사상인데, 이 네 가지를 다 갖춘다면 가장 좋은 작품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⁵⁾

문인화는 작가의 높은 인격과 사상으로 시적인 분위기 속에 흥취된 상태에서 어떤 화풍이나 기교에 구애됨 없이 맑은 정신 상태에서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을 글로 써서 표현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

문인화의 명칭은 명말, 동기창⁶⁾, 막시룡⁷⁾, 진계유⁸⁾ 등이 남북 북종론을 전개하면서 처음으로 지어진 이름이다.

송대의 문인화가 소동파(소동파 1039~1101)⁹⁾가 남화의 시조로 불리는 왕유¹⁰⁾의

註 3) 才情 : 재치 있는 생각

4) 許英桓, 『五代·宋의 회화』 (서울: 서문당, 컬러백과-중국의 미술2, 1999), p.30.

5) 許英桓, 『中國書論』 (서울: 서문당, 1988), p.83.

6) 동기창[董其昌, 1555~1636] : 호 사백(思白). 먹물 빛깔의 변화가 풍부하고 간명한 산수화를 많이 남겼고, 문학에도 능통하였으며, 저서로 《산수화책(山水畫冊)》 《용태집(容台集)》 등이 있다.

7) 막시룡[莫是龍, 1539~1589] : 중국 명(明)나라 후기의 서화가로 호는 후봉(後朋)·추수(秋水)이며 남북이종론(南北二宗論)을 제창하였다. 저서로는 《화설(畫說)》 《석수재집(石秀齋集)》 《막정한유고(莫廷韓遺稿)》 등이 있다

8) 진계유[陳繼儒, 1558~1639] : 중국 명나라 말기의 문인으로서 호는 미공(眉公/麋公), 저서로는 저서에 《보안당비급(寶顏堂秘笈)》 《미공전집(眉公全集)》이 있다.

9) 소동파[蘇東坡, 1036~1101] : 중국 북송 때의 시인. 호는 동파거사(東坡居士)이고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적벽부(赤壁賦)》가 있다.

그림을 일러 “시 속에 그림이 있고 그림 속에 시가 있다.” 즉, “시중유화 화중유시(時中有畫 畫中有時)” 라고 한 말에서 문인화의 성격을 잘 짐작할 수 있으며, 인품과 수양에 의한 자세만이 높은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했다.¹¹⁾

따라서 문인화는 문인의 취미를 알고 감정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그림 속에 문인의 사상과 인품과 문학적 요구가 깃들여져 있다면 문인화라 할 수 있다.

문인화를 정의해 본다면 “작가가 높은 인격과 사상으로 시적인 분위기 속에 흥취된 상태에서, 어떤 화풍이나 기교에 구애됨이 없이 맑은 정신 상태로 대상을 표현하는 그림”¹²⁾ 이라 할 수 있겠다.

2. 사군자의 정의와 역사

사군자는 동양회화에서 매(梅), 난(蘭), 국(菊), 죽(竹)을 뜻하며 네 가지 식물 각각의 특유한 장점을 <군자(君子)>, 즉 재질과 덕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미덕, 덕풍, 지덕 등을 충칭해서 부르는 말이다.¹³⁾

이것은 처음에는 인물을 가리키는 말로써, 전국시대의 뜻으로 높은 사람을 하여 그들의 덕망을 높이 받들기 위해 부른 이름이다.

매, 난, 국, 죽은 문인화의 소재로 중국과 한국에서 널리 애호되었으며 일본에서도 문인화가들에 의해 자주 채택된 화목이다. 매화는 이른 봄의 추위를 무릅쓰고 눈이 채 녹기도 전에 제일 먼저 꽃이 피고, 난초는 깊은 산중에서 은은한 향기를 멀리까지 퍼뜨리며, 국화는 가을에 첫 추위와 서리를 무릅쓰고 늦게까지 꽃이 피고, 대나무는 모든 식물의 잎이 떨어진 추운 겨울에도 싱싱하고 푸른 잎을 계속 유지한

註 10) 왕유[王維, 699~759] : 중국 당나라 시대의 시인 및 화가. 그의 주요작품으로서는 《창주도(滄州圖)》 《망천도(輞川圖)》 등이 알려져 있지만 아직 전해지는 것은 없다

11) ㉠조용진·배재영, 『동양화란 어떤 그림인가』 (경기: 열화당, 2002), p.48.

12) ㉠김종태, 『동양화 사상』 (서울: 일지사, 1984), p.42.

13) ㉠이성미, 『사군자의 상징성과 그 역사적 전개』, 한국의 미, 제18권, (서울: 중앙일보사), 1982 p.172.

다.¹⁴⁾

이러한 때, 난, 국, 죽의 식물학적 특성은 군자의 내면적 철학과 일치하여 형(形)의 문제에도 인물화나 산수화에 비해 간단히 해결할 수 있으며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의 인품과 성격을 반영해 표현할 수 있었다.

사군자화에서 보이는 서예적인 특징으로는 일필휘지성(一筆揮之性)¹⁵⁾과 필법(筆法)이 없는 사군자는 문인의 기(氣)가 없다고 해서 필력을 강조하였다. 또 서예에도 서법이 있듯이 사군자화에도 일정한 법칙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사군자는 인격수양과 청빈하고 깨끗한 마음가짐 그리고 은일적인 사상이 일치되어 유(儒), 불(佛), 선(禪) 합치¹⁶⁾로서 사군자의 표현을 사의적인 기법으로 발전시켰으며 사군자가 지니는 서(書), 화(畫)의 일치성과 상징성을 문인화가 갖는 의미와 동일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사군자에는 현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소위 진(眞), 선(善), 미(美), 정(貞)의 공통적인 미가 있어 그 아름다움이 은은하면서도 격이 높아 동양화에 있어서 중심적인 철학사상을 지니고 있다.¹⁷⁾

1)매(梅)

매화는 추위를 이기고 눈 속에서 피는 강인하면서도 고귀한 운치를 그 특성으로 한다. 살을 에는 추위 속에서도 풍기는 매화의 향기는 맑고 깨끗한 인품으로, 눈 속에서도 아름다운 자태는 봄을 알려주는 선구자적인 뜻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반드시 늦겨울 이른 봄의 추위 속에 피는 강건한 특성은 훌륭한 덕성을 지닌 군자의 강인한 절개와 지조 및 세속을 초월한 은일로 상징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매화를 가리켜 설중군자, 청향, 옥골, 화어사, 청객, 세외가인 등으로 부르기도 하였

註 14) 전개서, p.173.

15) 일필휘지성 : 한 번의 먹으로 그 먹이 다 할 때까지 그어내는 것

16) ㉞서정아. “사군자 사상의 회화사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대학원, 2003.

17) ㉞이우진. “로웬펠트와 아이스너의 미술교육 사상 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1998.

다.¹⁸⁾

매화가 재배되고 시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매우 오래 전부터였으나 수묵으로 그려지기 시작한 것은 북송 때였으며 창시자는 선승¹⁹⁾인 중인이었다. 그는 호남성 화광사의 주지로 문인사대부였던 소동파, 황정 등과 교유하면서 매화를 사랑하고 이에 대한 시를 읊고 지내다가 우연히 창문으로 매화나무의 성근 그림자가 빗겨드는 것을 보고 그 소쇄한 맛이 너무 좋아 붓으로 그 형태를 따라 그리다가 묵매삼미(墨梅三味)를 얻게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발생한 묵매화는 같은 선승인 묘고에 의해 이론적 체계화가 시도되었으며, 南宋 때에는 꽃잎의 윤곽을 그리는 권법이 완성되기도 하였다. 묵매의 이러한 전통은 원대에 와서 오태소²⁰⁾ 등에 의해 크게 성행되었으며, 명대부터는 화보²¹⁾ 등의 출현으로 다소 형식화되었지만 청대에 이르러 금농 등의 개성과 화가들에 의해 보다 담체가 많이 곁들여진 화사한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매화는 묵죽과 함께 고려 중기부터 그려졌으며, 조선시대에는 각 시기마다 구도와 기법을 달리하면서 독특한 양식으로 전개되었다. 조선 초, 중기에는 선비들의 기상과 밀착되어 고담한 모습으로 그려졌으며, 후기에는 문인화의 담백한 분위기가 강조되다가 말기에 이르러 조희룡²²⁾ 등에 의해 봄의 화사한 계절적 정취와 함께 보다 회화성을 질게 나타내었다.²³⁾

난초를 곡선미, 대나무를 직선미로 본다면 매화는 굴곡미에서 그 조형적 특성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매화를 그리는 데는 전통적으로 다섯 가지의 필수적인 방법이 있다. 뿌리는 서로 얽혀야 하고 대목(大木)은 꺾이해야 하고 가지는 말

註 18) ㉞임봉규, “중등미술교육의 사군자 지도방법에 관한 연구”(석사논문, 대구카톨릭대학원, 2004).

19) 선승 : 참선하고 있는 중.

20) 오태소 : 《송재매보 宋齋梅譜》(1350년경)

21) 화보(畫報) : 그림이나 사진을 위주로 하여 편집한 인쇄물, 또는 그림이나 사진

22) 조희룡[趙熙龍, 1797~1859] : 호는 호산(壺山)·우봉(又峯)·철적(鐵笛)·매수(梅叟)이고 시문및 서화에 능했으며 그림으로는 매화를 잘 그렸다. 대표적인 그림으로는 《동파립극도(東坡笠屐圖)》 《홍매도(紅梅圖)》 《강안박주도(江岸泊舟圖)》 《수묵산수도(水墨山水圖)》 등이 있다.

23) ㉞李東州, 『우리나라의 옛그림』(서울: 박영사, 1984), pp.88-91.

쑥해야 하며 줄기는 강건하고 꽃은 기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36가지의 병(三十六病)이 있다 하여 한 가지라도 잘못 그러면 평가를 받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기본 수련의 중요성과 함께 매화 역시 높은 경지에 들기가 어렵다는 점을 말해 주는 것으로 문제는 형식의 충실한 모방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 자신의 감성과 뜻을 얼마만큼 구현시킬 수 있는가에 참된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필법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담긴 정신세계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아야 하는 것이다.²⁴⁾

2)난(蘭)

난초는 예부터 깊은 골짜기에서 홀로 고고하게 향기를 품고 있는 모습이 세속의 이욕과 공명에 초연하였던 고결한 선비의 마음과 같다고 하여 '유곡가인', '유인' 또는 '향조', '군자향' 등으로 불리었다. 그리고 정절과 충성심의 상징으로 찬미되기도 하였다.²⁵⁾

난초의 상징성은 초나라의 시인이며 충신이었던 굴원²⁶⁾이 난의 고결한 자태를 거울로 삼았다고 말했듯이 이미 오래 전부터 형성되었다. 그러나 난초가 그림으로 그려지기 시작한 것은 北宋때부터였으며, 처음에는 화조화의 일부분으로 그려지다가 미불²⁷⁾에 의해 수묵법에 의한 독립된 화제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미불은 서예에도 뛰어났던 당대 최고의 문인화가로 그의 난화에 대해 비평가들은 잎이 서로

註 24) ㉞장성연. 『문인화 여행』. 서울: 이화출판사, 2000.

25) ㉞許英桓. 『한국 목란화에 대한 연구』. 월간문화재, no.12 (1978), p.111

26) 굴원[屈原, BC 343~BC 277] : 중국전국시대의 정치가이자 애국시인. 그의 독창적이고 개성적인 시들은 초기 중국 시단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27) 미불[米芾, 1051~1107] : 중국 북송(北宋)의 서예가이자 화가로서 호는 남궁(南宮)·해악(海岳)이다. 수묵화뿐만 아니라 문장·서(書)·시(詩)·고미술 일반에 대하여도 조예가 깊었고 강남의 운연어린 자연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기 위하여 미점법이라는 독자적인 점묘법을 창시하였다. 그리고 글씨에 있어서도 널리 알려져 송4대가로 불려지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화사(畫史) 외에도 《보장대방록(寶章待訪錄)》 《서사(書史)》 《보진영광집(寶晉英光集)》 《해악명언(海岳名言)》 등의 저서가 있고, 《초서9첩(草書九帖)》 《행서3첩(行書三帖)》 등의 작품이 있다.

교차하는데도 혼란치 않고 그렸다고 하여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²⁸⁾

이와 같이 화조화의 배경에서 하나의 화제로 독립된 묵란(墨蘭)²⁹⁾을 보다 사의적(寫意的)으로 발전시킨 사람은 정사(鄭思)³⁰⁾이었다. 그는 남송이 元에 망하자 나라를 빼앗긴 울분을 “나라를 잃으면 난을 그리되 뿌리가 묻혀있어야 할 땅은 그리지 않는다는 것”을 노근란(露根蘭)을 통해 내면을 토로하였다. 그의 이러한 정신과 난법은 일대종사로서 후인들의 규범이 되어 오랫동안 영향을 미쳤다. 원나라 때는 송설체³¹⁾로 유명한 조맹부와 설창 등에 의해 산뜻하고 단아한 모습의 묵란이 유행되기도 하였으며, 특히 조맹부의 부인인 관도승의 맑고 수려한 난화는 마수정, 표표 등의 여류 화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쳐 이들을 ‘규수전신파’라 부르기도 한다. 문인화가 널리 보편화되었던 明代에 와서 묵란은 더욱 크게 성행하였고, 이러한 전통이 清代에도 계속 이어져 보다 다양하고 개성이 넘치는 화풍으로 발전하였다. 그 중에서도 명조 유민화가와 정섭 등이 특히 뛰어났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묵란은 고려 말기에 전래되어 조선 초기부터 그려지다 추사 김정희에 이르러 대성되었고 그 전통이 근대를 거쳐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렇듯 묵란은 그 은은한 먹 향기와 수려한 곡선미와 청초한 분위기를 통해 고결한 이념미가 역대의 뛰어난 문인화가들에 의해 계승, 발전되어 오면서 사군자 그림과 문인화의 발달에 중요한 구실을 하였던 것이다.³²⁾

그런데 우리가 사군자 그림을 배울 때 이러한 전통과 상징성을 지닌 묵란을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은 난초의 생김새가 한자의 서체와 닮은 점이 가장 많다는 데 있다. 난엽을 그리는 것을 잎을 그린다고 하지 않고 잎을 빠친다고 하는 것도 글씨에서 빠치는 법을 쓰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김정희는, “난초를 치는 법은 예서

註 28) 전계서. p.112

29) 묵란[墨蘭] : 수묵으로 그린 난초그림.

30) 정사[鄭思 1239~1310] : 남송이 이민족의 침입으로 망하여 원의 지배를 받는 것에 대한 울분을 느껴 묵란의 뿌리와 그 것이 자랄 땅을 그리지 않음으로써 자랄 곳이 없는 자신의 처지에 빗대었다. 즉 송 왕조가 멸망했기 때문에 자신이 설 땅이 없으며, 또한 이민족의 더러운 땅을 받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31) 송설체 [松雪體] : 중국 원(元)나라 조맹부의 서풍(書風).

32) ㉞許英桓, 한국 묵란화에 대한 연구. 월간문화재, no.12 (1978), p.113

를 쓰는 법과 가까워서 반드시 문자향과 서권기³³⁾가 있는 뒤에 얻을 수 있다.”³⁴⁾고 하여 이론적으로 서체훈련이 회화기술의 기초가 되고 있음을 말한 바 있다. 이 점은 묵란화가 문인묵객(文人墨客)들이 즐겨 찾던 주제의 하나로서 시, 서, 화에 능한 삼절, 특히 서예에 뛰어난 사람들에 의해 주로 그려졌던 사실로도 알 수 있다.³⁵⁾

3) 국(菊)

국화는 다른 꽃들이 만발하는 계절을 참으며 서리 내리는 늦가을에 그 인내와 지조를 꽃피운다. 만물이 시들고 퇴락해 가는 시절에 홀로 피어나는 이러한 국화의 모습은 현세를 외면하며 사는 품위 있는 자의 모습이나 오상 고절한 군자를 연상케 한다. 그래서 예부터 국화는 만향, 오상화, 선선상중국, 가우, 절화, 금화 등으로 불리면서 정절(貞節)과 은일(隱逸)의 꽃으로 알려져 왔다. 그리고 국화는 본성이 서쪽을 좋아하기 때문에 동쪽 울밑에 흔히 심는 것으로 되어 있어 동리가색(東籬佳色)이라는 별명이 생겼으며, 특히 판나라의 유명한 전원시인이며 은사였던 도연명(365~427)³⁶⁾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면서 더욱 시인묵객들의 상탄의 대상이 되었다.

국화도 다른 사군자와 마찬가지로 北宋代부터 문인화의 성격을 띠고 그려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묵국만을 전문으로 다룬 화가는 매우 드물었으며 청 말기에 와서 오창석 등에 의해 회화성 강한 채국(採菊)이 많이 그려졌다. 우리나라에서도 묵국화는 그다지 성행하지 못했고 조선 말기 이후로 오히려 화화로서 보다 많이 다루어졌다.

국화의 종류도 상당히 많지만 그 중 빛깔에서 황국(黃菊)을 으뜸으로 친다. 국화는 단독으로 그려지는 경우보다 다른 초화(草化)나 괴석(怪石)과 함께 구성되는 경

註 33) 문자향 서권기(文字香 書卷氣). : 문자에서 나는 향과 서책에서 우리나라오는 기운을 말할

34) ㉞최완수, 『추사집』 (서울: 현암사, 1976), p.321.

35) <http://report.empas.com/report> 사군자의 상징성

36) 도연명 [陶淵明, 365~427] : 중국 동진(東晉)·송대(宋代)의 시인. 주요작품 《오류선생전》 《도화원기》 《귀거래사》 등이 있다.

우가 많다.

국화 전체 모습의 운치는 꽃이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으면서 번잡하지 말아야 하며, 잎은 상하, 좌우, 전후의 것이 서로 덮고 가리면서도 난잡하지 말아야 한다. 국화의 꽃과 꽃술은 덜 핀 것과 활짝 핀 것을 갖추어서 가지 끝이 늙든지 일어나 있든지 하여야 한다. 활짝 핀 것은 가지가 무거우므로 누워있는 것이 어울리고 덜 핀 것은 가지가 가벼울 수밖에 없으므로 끝이 올라가는 것이 제격이다. 그러나 올라간 가지는 지나치게 꽃꽃해서도 안 되고 누운 것은 너무 많이 드리워서는 좋지 않다. 국화의 잎의 형태는 다섯 갈래로 갈라지고 파진 곳이 네 군데가 있어서 그리기가 어렵다. 국화는 늦가을에 피는, 서리에도 오염한 꽃이다. 그러므로 섬세하고 화사한 봄철의 꽃과는 특성이 다르다. 그림이 종이 위에 이루어졌을 때 만절(晩節)을 굳게 지켜 그윽한 향기를 풍기는 국화를 대하는 느낌이 들어야 한다.³⁷⁾

4)죽(竹)

대나무는 옛 부터 문인사대부들의 가장 많은 애호를 받으면서 사군자의 으뜸으로 꼽혀 온 것이다. 그것은 대나무의 변함없는 청절한 자태와 그 정취를 지조 있는 선비의 묵객들이 사랑했기 때문일 것이다. 늘 푸르고 곧고 강인한 줄기를 가진 이러한 대나무는 충신열사(忠臣烈士)와 열녀(烈女)의 절개에 비유되기도 하였다.

대나무가 그림의 소재로 등장한 것은 삼국시대부터였으나 수묵화의 기법과 밀착되어 문인사대부들의 화목으로 발달시킨 사람은 북송의 소동파(蘇東波)와 문동(文同)³⁸⁾이었다. 소동파는 특히 그리고자 하는 대나무의 본성을 작가의 직관력으로 체득하여 나타낼 것을 주장한 '중성죽론(中成竹論)'을 제창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문

註 37) ㉞이선옥, 『선비의 벗 사군자』. 경기: 보림출판사, 2005.

38) 문동[文同, 1018~1079] : 호는 금강도인(錦江道人)·소소선생(笑笑先生)이고 시문과 글씨, 죽화(竹畵)에 박학(博學)하여 성경(星經)·지리(地理)·방약(方藥)·음률(音律)에 통달하였으며, 시문 이외에 글씨에도 전(篆)·예(隸)·행(行)·초(草)·비백(飛白)을 잘하였다. 산수·화조(花鳥)를 잘 그렸고 특히 묵죽(墨竹)에 뛰어났다. 주요서적으로는 시문집에 《단연집(丹淵集)》이 있다.

동은 '호주죽파(湖州竹派)'를 형성하여 묵죽화의 성행에 크게 기여하였다.

南宋 때에 이르러 묵죽은 더욱 유행하였고 원대에는 문인사대부들의 저항과 실의의 표현방편으로 상황을 이루기도 하였다. 이 때 벌써 이행(李衍)에 의해 [죽보(竹譜)] 7권이 만들어져 화법이 체계적으로 발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죽의 생리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묵죽화가로서 유명하였다. 元代에는 이 밖에도 조맹부, 오진, 찬 등의 명가들이 나와 가늘면서 굳센 묵죽화풍을 형성했으며, 이러한 전통이 明代의 하(夏) (1388~1470)등을 통해 자연미와 이념미가 융합되면서 청대로 계승되었다.³⁹⁾

죽을 그리는 데 묵죽을 기본으로 삼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으나 묵죽 이전에 사죽(寫竹)과 채색죽의 방법이 이미 있었음을 기록을 통해 엿볼 수 있다. 사죽은 사생에 의한 대나무의 묘사방법이고 채색 죽은 윤곽을 선묘로 두르고 안에 칠을 하는, 이른바 채(彩)의 방법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대나무는 수묵법과 결부됨으로써 비로소 동양회화의 중심적 창작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기운과 정신의 주관적 표현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다. 묵이란 선으로서 작용할 뿐 아니라 색채를 대신한 면으로서도 작용한다. 문동이나 소동파에 의해 처음 시도된 묵죽은 바로 대상물의 외형적 사생을 떠난 전신의 실천적 방법으로 죽을 그린 것이 되며, 이때의 묵은 현상 세계 너머의 조화력을 암시하는 것으로 묵선이나 묵면 모두 그 기운을 담는 형식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묵죽과 동양회화가 지니고 있는 사의정신은 이러한 창작사상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묵죽도 묵란과 마찬가지로 서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예찬⁴⁰⁾은 서법 없는 묵죽은 병든 대나무를 보는 것 같다고 했으며, 明代의 王은 서법과 죽법은 동체(同體)라고 하였다. 그러나 묵란이 짧고 긴 곡선의 반전 등을 통해 풍부한 변화를 보이는 데 비해 묵죽은 직선이 위주이며 그 구도에서도 보다 다양한 것이 특색이다. 묵죽을 그리는 데도 절차와 방법이 있는데, 줄기(幹)와 마디(節), 가지(枝)와 잎

註 39) ㉞서정아, "사군자사사의 회화사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대학원, 2003), p.8.

40) 예찬[倪瓚, 1301~1374] : 호는 운림 ·정명거사 ·운림산인·무주암주. 후에 원4대가(元四大家)로 알려진 일군의 화가들 가운데 한 사람. 대표적인 저서 및 작품으로는 《청비각집》, 《어장추제도》, 《산수도》(1362) 이 있다

(葉)마다 그리는 순서가 있다. 먼저 죽간⁴¹⁾을 그리고 다음에 가지를, 이어서 방향과 필법을 변화시켜 잎을, 마지막으로 마디를 그리는 것이 청대 이후 확립된 죽화법(竹化法)이다.

이순서는 시에서의 기승전결(起承轉結)⁴²⁾과 같다. 이러한 붓질의 흐름은 사군자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지만 그 중에서도 죽의 경우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그러면서도 실제로 묵죽을 그리는 것이 다른 사군자에 비해 어렵게 여겨지는 것은 대나무의 형태 자체는 단순하지만 일기와 계절적 정취에 따른 변화가 다양하고 미묘하기 때문이다. 대나무는 이러한 기후와 자연적 정경에 따라 청죽, 양죽, 로죽, 우죽, 풍죽, 설죽, 월죽 등의 화제로 다루어졌는데 대가들조차 50년을 그린 후에야 비로소 그 경지가 터득되고 마음에 드는 죽화를 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곧 묵죽의 높은 경지와 깊은 맛을 시사 하면서 이러한 사군자그림들이 결코 본격적인 회화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기초 내지는 예비단계의 차원이 아니라 동양 회화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의의를 내포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⁴³⁾

註 41) 죽간(竹竿) : 대나무 장대.

42) 기승전결(起承轉結) : 한시의 구성법의 한 가지. 첫구에서 시의(詩意)를 일으키고[기], 둘째 구에서 받아[승], 셋째 구에서 변화를 주고[전], 넷째 구에서 전체를 마무리함[결].

43) <http://report.empas.com/report> 사군자의 상징성

Ⅲ 중등미술의 사군자 교과지도 적용방안

1. 7차 교육과정에서의 전통미술

전통미술이란 ‘역사적 개념으로서 고대부터 지금까지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 이어져 내려 온 미술양식(美術樣式)과 미의식(美意識)의 총체’를 말한다. 즉, 전 세대로부터 현재의 미술문화 생활로 전해 내려오며 존속 발전되는 미술상의 양식과 태도, 기법 등이다.

전통은 특수 집단의 문화를 일관성 있게 해주고 타 집단의 문화와 구분 지어주는 특수성을 지니게 된다. 또한 전통은 과거에 존재하였던 것을 그대로 현대 속에 옮겨 놓은 것이 아니고 현대의 창조를 위해 과거에 존재하였던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고 현대적 이해와 정신으로 현대 속에서 재생시키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⁴⁴⁾

현행 교육과정은 건전한 정신과 튼튼한 몸을 지닌 건강한 사람, 자신과 공동체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여 실천하는 자주적인 사람, 지식과 기술을 익혀 문제를 슬기롭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창조적인 사람, 인간을 존중하고 자연을 아끼며 올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도덕적인 사람을 기르는 데 역점을 두어 구성하였다. 이에 현행 교육과정의 미술과 총괄 목표로는 이전의 미술과 교육 과정의 목표와 그 방향을 같이하며, 미술 활동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표현 및 감상 능력, 창의성, 심미적인 태도로 함축하고 있다. 이는 심동적, 인지적, 정의적인 면들을 함께 고려한 것으로서, 미술 활동에서의 심동적인 측면인 표현 및 감상 능력, 인지적인 측면인 창의성, 정의적인 측면인 심미적인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전인적 성장의 바탕 위에 개성을 지향하는 인간, 전통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민주적 공동체에 헌신하는 인간, 기초 능력을 토대로 개방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인간, 교양과 덕성을 갖추고 직업적 과업과 가치를 실현하는 인간을 기르기

註 44) 이경성, 『미술입문』(서울: 문화교육출판사, 1962), pp.79~82.

위해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⁴⁵⁾

이전의 교육과정과는 달리 현행 미술교육과정에서 달라진 점은 관심밖에 있던 전통 예술에 대한 이해와 전통 문화의 계승⁴⁶⁾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 교육과정에서의 목표는 우리 조상들이 남긴 미술문화 유산의 독창성과 우월성을 발견하고 이를 계승, 발전시키고, 학생들로 하여금 전통미에 대한 이해와 긍지를 가지고 발굴하는 태도를 가지도록 강조한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 문제시되는 점은 타 미술 영역에 비하여 전통미술의 지도가 미흡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전통미술의 영역 중 사군자 지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2. 전통미술 적용방안

고대로부터 현대의 다양한 미술이해와 평생 동안 미술과 함께 하는 생활은 미술적 기능 습득이나 작품 제작능력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통미술의 지식과 미적인 안목을 넓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요구한다.⁴⁷⁾

오늘날 우리나라의 미술교육은 전통을 현대적으로 개발하지 못하고 그대로 답습하는 복고주의적 경향과 그와는 반대로 전통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외면하거나 배척하려는 탈 전통주의적인 두 경향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 두 가지 상반되는 경향은 모두가 전통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문화의 창조에 저해 요인이 된다.⁴⁸⁾

또한 광복 이후부터 서구문명의 유입과 산업화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에서 무비판적인 문화의 수용은 우리문화의 가치기준과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을 흐리게 만들었다. 우리는 미술교육현장에서 먼저 이러한 현실을 책임 있게 반성하여 전통미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학습 방법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註 45) 서울특별시 교육청, 「제 7차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2000. p.279~282

46) ㉞조영현, "중등미술교육에 있어 문인화 지도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 홍익대학교육대학원, 2002), p.18.

47) ㉞이주연, 『DBAE란 무엇인가?』 (1997. 4), p. 31.

48) ㉞안선희, "초등학교에서 한지작업을 통한 전통미술 지도" (석사학위논문, 한국국원대학, 1992), P.10.

따라서 전통미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며 창조 능력을 키워 가는 학습 지도방법의 연구가 필요하다.

① 미술사적 이해 : 한국의 민족의식과 역사의식

전통미술작품을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서 다양하게 탐구함으로써 미술이 사회, 문화에 공헌하는 가치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데 초점을 둔다.

- 작품의 상징적 의미
- 작가, 연도, 시대적 상황
- 표현 양식
- 작품 제작 동기
- 작품에 대한 가치 (학자의 논증)

② 미적 지각활동 : 한국의 미의식, 전통예술의 형식과 내용

미적 지각활동이 인간의 생활경험 속에서 미술적 요소를 깨닫고 분별하여 이를 시각 형태로 표현하고 가치를 판단하는 행동을 “바라보는 능력”으로 보고, 이러한 학습이 미술교육에 있어서 핵심적 요소이고 학습에 기초를 이루어야 한다. 이러한 미적 지각 능력은 학생 스스로 터득하여 얻어지기는 불가능하고 질문이나 토론, 평가를 통해 발달되는 것이다.⁴⁹⁾

- 미의 요소
- 미술의 가치와 중요성
- 작품의 형식과 내용
- 다른 나라의 조형미와의 차이

③ 미술 평가활동 : 한국 전통미술 감상

아이스너⁵⁰⁾는 미술 평가는 개인의 선택으로서 좋고 나쁨, 인정과 불인정, 혹은

註 49) ㉞노부자, "미술 감상과 교육," 『조형교육』 (서울: 한국조형교육학회, 1997), no.13, pp. 72-74.

註 50) 아이스너 : 미술교육 사상은 창의성을 기르는 것에서 미술기초개념이나 미술학습 내용을 가르치는 것으로 이해, 강상 및 비평 중심의 미술교육의 주안점을 변화시키는데 기여. 우리나라의 6,7차 미

개인의 중요성이나 의미심장함과 같은 단순한 서술이 아니라 미술적 뛰어난 평가에 대한 타당성에 기초해야 한다고 밝히며, 이해능력과 비판능력이 단계적 학습 훈련을 통한 배움으로 습득된다고 학자들은 주장한다.⁵¹⁾

- 작품의 주제
- 작품 제작 의도
- 작품의 다양한 구성 요소와 의미

④ 작품제작활동 : 전통적인 기법 체험

전통미술 기법을 익히기 위해 교사가 사용 재료들을 능숙히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다양한 참고자료를 제시하여 이를 토대로 주변에 표현 가능한 경치를 창의적인 시각언어로 표현하게 해준다.⁵²⁾

- 재료의 사용방법
- 전통 표현기법 체험
- 여백을 통한 구도설정
- 낙관 찍기

이 같은 학습구조는 작품 제작활동을 학습하는 과정 속에서 역사적인 배경과 양식을 이해하고, 다른 작품을 통해 미적 가치와 의미를 깨닫는 심미적 지각활동과 조형적 요소를 이해하여 감상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학습방법⁵³⁾의 체계를 지향한다.

3. 교과서 문인화 단원 분석

현행 교육과정의 중학교 교과서를 보면 대체로 이전의 교과서보다는 주제에 따른 다양한 표현 방법이나, 작가의 의도가 미흡하게나마 나타나있다. 이에 본 장에

미술교육 아이스너의 사상에 영향 받음.

51) 상계서. p.75.

52) 전계서. p.76.

53) 최영자, “전통미술 교육의 교과적인 지도방안연구”(석사논문,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2000), p.8.

서는 현행 7종 교과서를 중심으로 학년별 한국화 부분의 문인화 단원을 분석함으로써 사군자 지도에 관한 기초 내용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알아보고자 한다.

1) 연구대상의 교과서

<표 - 1> 출판사별 중학교 미술교과서

출판사	중학교	저자
교학사(주)	7, 8, 9학년	노영자, 이인숙
교학연구사	7, 8, 9학년	김정희, 박인숙, 서권수, 성종실, 정연희, 류장길, 한경애
대한교과서 (주)	7, 8, 9학년	김기숙, 박병천, 이현표, 유금자, 강신술, 안병철, 김용주, 장경아
두산(주)	7, 8, 9학년	고승혜, 이완숙, 장선화, 고승근, 류계순
삶과 꿈	7, 8, 9학년	홍명섭, 남정숙
중앙교육 (주)	7, 8, 9학년	서석래, 이석원, 이주원
진흥연구소		
지학사(주)	7, 8, 9학년	노부자, 윤양희, 안금희, 오미숙, 김규봉

다음은 표현영역 중 한국화 부분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먼저, 표현 영역의 한국화 교육내용을 학습제재와 학습 목표, 학습 내용으로 구분하여 학년별, 출판사별로 정리하였다.

<표 - 2> 각 출판사에 따른 문인화와 관련된 단원과 내용조사

교과서	7학년	8학년	9학년
지학사	<p>*먹으로 그린 그림 -먹의 특성을 알고 활용할 수 있다. (수묵화 재료와 용구에 따른 특성, 삼목법, 사군자)</p> <p>*감상</p>	<p>*수묵과 담채 -수묵담채의 특성을 알고 표현할 수 있다. (수묵화의 표현기법)</p>	<p>*수묵과 채색의 조화 -채색화의 특징을 알고 전통미를 살려서 표현할 수 있다. (산수화에 쓰이는 준법, 민화)</p>
삶과꿈	<p>*점, 선, 면 -자연을 관찰하며, 조형의 요소를 찾는다.</p>	<p>*전통의미를 살려서 -전통의 소중함을 알고 전통미를 살려 표현한다. (수묵화의 표현기법)</p>	<p>*생동하는 글과 그림 -용필법을 익혀 힘차게 그리고 바르게 쓴다. (용필법)</p> <p>*사군자 -대나무 그리기</p>
교학 연구사	<p>■ 수묵으로 나타내기 * 수묵의 이해 -수묵의 성질을 알고 표현기법을 탐색한다. (삼목법)</p> <p>*먹과 종이의 만남 -수묵화의 다양한 표현방법을 알고 이해한다.</p>	<p>*수묵담채로 나타내기 -수묵담채의 특징과 표현기법을 알고 표현할 수 있다. (산수화의 삼원법⁵⁴), 수묵담채화의 제작과정)</p>	<p>■ 전통미술을 찾아서 *채색으로 나타내기 -채색화의 재료와 표현기법을 알고 재미있게 표현한다.(채색화의 제작과정)</p> <p>*민화그리기 -민화에 담긴 의미를 알고 재미있게 그려본다.</p>

<p>대한 교과서 (주)</p>	<p>*수묵으로 표현하기 -주변의 대상에서 받은 감동을 효과적으로 나타낸다. (먹색과 붓 선의 변화, 재료와 용구의 특성)</p>	<p>*수묵담채로 그리기 -주변의 경치의 아름다움을 재료와 기법의 특성을 살려 표현한다. (재료의 사용과 표현기법) -사군자의 개념을 알고 그리기</p>	<p>*색감을 살려 나타내기 -여러 가지 관찰방법과 재료를 활용하여 주제를 다양하게 표현한다. (채색화의 특징, 민화)</p>
<p>중앙교 육 진 흥연구 소(주)</p>	<p>■ 수묵의 향기 *수묵으로 그리기. 기법 -먹의 특징을 이해하고 농담을 살려 표현한다. (표현기법: 물골법, 구름법) *선비정신과 문인화 -문인화의 개념과 선비정신에 대한 이해.</p>	<p>■ 먹과 색의 어울림 *수묵담채와 전통기법 -전통회화의 정신을 이해하고 재료와 용구의 특성을 살려 독창적으로 표현한다. (표현기법의 다양성, 전통회화 채색 물감의 종류) *문인화 · 사군자 -문인화의 역사적 배경과 사군자 그리기</p>	<p>*같은 재료 다른 표현 -여러 가지 재료로 표현기법의 특징을 살려 독창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우리의 옛 그림 -조상들의 생활에 한 부분을 차지한 민화의 소재를 알고 표현할 수 있다. *전통에서 현대로 -전통회화의 표현 특징과 재료의 특성을 알고 현대적으로 표현기법을 이해할 수 있다.</p>

<p>두산 (주)</p>	<p>*사물의 표현. 수목화 -주제에 맞게 재료를 선택하여 표현하여 보자 (삼목법)</p>	<p>*수목과 채색의 효과를 살려서 -전통기법인 수목화와 채색화를 이해하고 주변 풍경을 소재로 표현한다.</p> <p>*수목화와 채색화 -수목화와 채색화의 특징을 이해하고 감상한다.</p> <p>*주변풍경 그리기. 표현 활동 -거리감, 공간감을 살려 주변풍경을 수목 담채화로 나타낸다. (삼원법, 수목담채표현기법, 풍경화 제작과정)</p> <p>*작품 감상 -작품을 감상하고 여러 가지 표현방법에 따른 이야기를 해본다.</p>	<p>*전통회화의 맥을 이어서 -전통회화의 기법인 수목과 채색의 특징과 표현방법을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한다.</p> <p>*전통회화 감상. 표현 -전통회화의 표현기법, 채색화의 표현기법, 채색화의 제작과정</p> <p>*심화학습: 민화의 이해 -민화감상을 통해 조상들의 생활을 이해한다.</p>
-------------------	---	--	---

교학사 (주)	<p>*수묵으로 그리기</p> <p>-수묵화의 재료 및 용구의 특성과 기법을 이해하고 표현한다.(삼목법과 사군자)</p>	<p>*먹과 채색의 만남</p> <p>-수묵담채화와 진채화의 기법을 이해하고 표현한다. (몰골법, 구름법, 민화, 전통 채색 물감의 종류)</p>	<p>■ 수묵화와 채색화</p> <p>-수묵화와 채색화의 특성을 살려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한다.</p> <p>*먹색을 살려서</p> <p>*먹에 채색을 더하여</p> <p>*전통회화의 새로운 표현</p> <p>(문인화와 채색화의 제작과정, 전통회화의 새로운 표현)</p>
------------	--	--	--

<표 - 2>⁵⁵⁾에서 본 바와 같이 각 출판사에서 발행한 미술교과서에서 사군자와 관련된 단원과 내용은 총 7종 미술교과서 중 3종 밖에 되지 않았다, 출판사마다 사군자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대다수의 출판사가 수묵담채 위주의 한국화 표현 방법이나 민화⁵⁶⁾의 특성, 감상 부분으로만 다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단, 중앙교육 진흥연구소의 중학교 7, 8학년에서의 미술교과서에서만 유일하게 대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대한교과서는 중학교 8학년, 교학사는 중학교 9학년에서 문인화 즉, 사군자에 관련된 학습 내용이 수록되어 있었다, 중앙교육 진흥연구소의 미술교과서는 7, 8학년 모두 독립된 단원으로 문인화의 개념과 사군자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다루어져 있으며, 8학년 감상 영역에서는 중국의 문인화까지 자세히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작품이 표현기법 위주의 설명으로 는 학생들이 정확한 문인화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작품을 통하여 작가가 나

註 54) 삼원법 : 송나라때 광희가 창안한 것으로, 동양의 원근 표현법. 고원법, 평원법, 심원법이 있다.

55) 조영현. “중등미술교육에 있어 문인화 지도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 홍익대 교육대학원, 2002.p.46

56) 민화(民畵) : 조선 후기에 유행하였고 생활공간의 장식 또는 민속적인 관습에 따라 제작된 실용화(實用畵)를 말한다.

타내려는 의도와 작품이 나오게 된 배경, 특성 등을 서술하면 확실한 개념이 생길 것이라고 본다.

다음은 대한교과서의 8학년 교과서에는 수목담채로 그리기의 일부 중 사군자가 다루어졌으나 개념, 표현기법, 정신에 관해서는 다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교학사 9학년 미술교과서에서는 전통회화의 새로운 표현으로 문인화와 채색화의 제작과정의 학습내용이 있었으며 개념 정리는 다소 미흡하였으나 제작과정을 통해 문인화의 기본 묘법과 정신을 알 수 있었다.

삶과 꿈의 9학년 미술교과서에서는 사군자의 대나무 그리기가 구체적으로 제시 되어 있다. 사군자의 매, 난, 국, 죽 모두가 제시 되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7종 미술 교과서에서 보듯이 문인화에 대한언급이 없다는 점은 아직도 한국화교육이 표현기법이나 재료에 대한 효과만 치중하고 우리 선조들의 정신적인 면에 대한 교육이 소홀히 다루어진다는 점에서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다.

3. 효과적인 개선방안

<표 - 3>제 7차 중학교 미술교육의 총괄목표와 하위목표

총괄목표	미술활동을 통하여 표현 및 감상능력을 기르고, 창의성을 계발하며, 심미적인 태도를 함양 한다.	
하위목표	미적체험	미적 대상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다.
	표현영역	느낌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감상영역	미술품의 가치를 판단하고, 미술 문화유산을 존중할 수 있다.

중학교의 제 7차 교육과정에 제시된 ‘미술’의 교육 목표는 “ 미술 활동을 통하여 표현 및 감상 능력을 기르고 창의력을 개발하여 심미적 태도를 함양한다.”이다. 그

하위목표로 미적체험 이외에 표현, 감상을 더 첨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 미적체험과 표현은 신체적, 음악적, 조형적 활동의 여러 가지 경험과 표현을 통하여 나타난다. 통합적인 경험 속에서 신체의 움직임이 있으며, 음악적, 조형적 활동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경험 과정에서 신체의 움직임 요소(신체, 공간, 속도, 무게, 방향, 관계 등)와 음악적 요소(리듬, 가락, 셈여림, 음색, 형식 등), 조형적 요소(선, 색, 모양, 질감 등)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주변 생활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 상상한 것 등을 재미있고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표현 활동은 여러 가지 주제, 예를 들어 자연, 주변 생활, 안전과 질서 등과 관련하여 신체적, 음악적, 조형적 표현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여럿이 어울려 나타내기를 통하여 협동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한다. 즉, 신체적, 음악적 표현이 함께 하는 음악에 따라 신체 표현하기, 음악적 표현 위주의 노래 듣고 부르기 등의 내용과 조형적 표현 위주의 알리는 것, 장식품 등을 꾸미거나 만들기 등의 표현 활동을 제시한다. 또한 표현 과정에서 신체의 움직임 요소와 음악적 요소, 조형적 요소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따라서 중등학교 7, 8학년 미술은 여러 가지 경험과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창의적인 표현력과 풍부한 정서를 가지도록 하기 위한 통합 교과이다.⁵⁷⁾

. 표현

7학년- 여러 가지 주제 표현하기: 생활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 상상한 것 등을 재미있게 표현하기

8학년- 여러 가지 주제 표현하기: 생활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 상상한 것 등을 재미있고 다양하게 나타내기

현행 교육과정에 제시된 중등학교 9학년 수준에서의 ‘표현’은 느낌과 생각을 자유롭게,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게 함으로써 표현 활동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도록 하며, 창의적인 활동에 기반이 될 수 있는 기초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다.

. 주제 표현

註 57) ㉞박소영 외 공저, 『제7차 미술과 교육과정 개발 연구』(서울: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2000), pp.19-25.

주제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 본 것, 느낀 것, 상상한 것을 나타낸다.
- 모양과 쓸모를 생각한 것, 환경에 필요한 것을 나타낸다.
- 평이한 한글로 나타낸다.

. 표현방법

평면과 입체의 특징을 생각하여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 평면과 입체의 특징을 알고, 기본적인 표현 방법으로 나타낸다.
- 판본체⁵⁸⁾로 쓴다.

. 조형 요소⁵⁹⁾와 원리⁶⁰⁾

조형 요소와 원리를 알고 표현할 수 있다.

- 형, 색, 질감, 동세, 양감 등을 생각하여 나타낸다.
- 점획의 길이, 방향 등을 익혀서 쓴다.

. 표현 재료와 용구

재료와 용구의 기본적인 사용방법을 알고 표현할 수 있다.

- 여러 가지 재료의 성질을 알고 나타낸다.
- 용구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알고 바르게 사용한다.⁶¹⁾

9학년의 표현 영역에서는 본 것, 느낀 것, 상상한 것, 모양과 쓸모를 생각한 것, 환경에 필요한 것 등의 주제를 평면이나 입체로 표현하는 방법을 탐색하는 데 중점을 두어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고학년 시기에는 사실적인 표현의 단계에 도입하게 되며, 점차 대상의 객관적인 관찰 정도가 높아지고 세부적인 묘사에도 눈을 돌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느낀 것, 상상한 것 등에 대한 표현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므로, 교사는 다양한 표현 유형을 인지하고 이에 적

註 58) 판본체 [版本體] : 한글 서체의 하나로 훈민정음, 용비어천가 등의 판본에 쓰인 글자를 기본으로 쓴 붓글씨의 글자꼴을 말한다. 고체 또는 정음체라고도 한다. 글씨의 특징으로는 획의 굵기가 일정하고 사각형에 가까운 조형을 하고 있으며 문자의 중심에 좌우 대칭을 이루는 기하학적인 조형을 취하고 있다. 모음에 따라 자음의 폭이 넓거나 좁게 변한다.

59) 조형 요소 : 점. 선 .면 .색채. 형태. 양감. 질감. 명암

60) 조형 원리 : 통일. 비례. 율동. 균형. 대비. 강조. 반복. 대칭. 대조. 동세

6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중등학교 교사용 미술지도서』(서울: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2001), pp.7-12.

절한 지도를 해야 한다.⁶²⁾

. 주제 표현

주제의 특징을 생각하여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

- 본 것, 느낀 것, 상상한 것을 나타낸다.
- 모양과 쓸모를 생각한 것, 환경에 필요한 것을 나타낸다.
- 평이한 한자로 나타낸다.

. 표현 방법

평면과 입체의 특징을 생각하여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 평면과 입체의 특징을 알고,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을 탐색하여 나타낸다.
- 판본체, 궁체⁶³⁾로 쓴다.

. 조형 요소와 원리

- 형, 색, 질감, 동세, 양감, 공간 등을 생각하여 나타낸다.
- 문자의 짜임새, 점획의 변화 등을 익혀서 쓴다.

. 표현 재료와 용구

재료와 용구의 특성을 탐색하여 표현할 수 있다.

- 여러 가지 재료의 성질을 살려서 나타낸다.
- 용구를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알고 활용한다.⁶⁴⁾

9학년에서는 7, 8학년에서 제시된 미술과 내용과의 연계성을 살려서 표현활동을 하도록 하며, 9학년에서는 교육 과정에 함께 제시된 9학년 군별의 미술과 내용에서 9학년에서 이미 학습한 내용과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표현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지도한다.

미술과 교육 내용에 따른 표현 지도상의 유의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다양한 발상 지도를 통하여 학습 효과를 높인다.

둘째, 주제 표현, 표현 방법, 조형 요소와 원리, 표현 재료와 용구는 표현 활동

註 62) 전개서. p.26.

63) 궁체(宮體) : 조선 후기에 비롯된 한글 서체로 궁녀들이 주로 사용. 선이 곧고 맑으며 단정·아담하며, 세로로 긴 직사각형의 자형, 가로획의 오른쪽 끝이 약간 올라간 것이 특징.

64) ㉠교육부, 『중학교 미술 교육과정 해설』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9), pp.178-179.

속에서 통합할 수 있다.

셋째, 교육 과정상의 내용에서 제시된 조형 요소와 원리는 학생들의 흥미, 수준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선정할 수 있다.

넷째, 표현 재료와 용구의 선택 및 활용 방법에 대한 지도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하며, 안전에 유의한다.

다섯째, 표현 활동을 계획할 때에는 환경 문제를 고려한다.

여섯째, ‘미적 체험’ 및 ‘감상’ 영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한다.

일곱째, 표현활동 후에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도록 한다.⁶⁵⁾

뿐만 아니라 현행 교육 과정에 따른 지도상의 유의점은 이전의 교육 과정과 비교해 보았을 때 전반적인 내용에는 차이가 없으나, 효과적인 학습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와 방법의 활용이 강조된 점이 두드러진다. 새로운 교육과정에서는 첨단 멀티미디어와 정보 통신 기술의 도입을 통한 교육 방법, 내용, 제도의 변화가 학교 교육 전체에 실현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같은 단위 시간 내에 교육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교과외 특성상 ‘미적 체험’, ‘표현’ 및 ‘감상’ 등 전 영역에 걸쳐서 다양한 매체의 활용이 적극 권장된다.

표현 활동을 살펴보면,

. 준비단계: 학습의 공통 목표를 설명하고, 풍부한 발상을 유도하며, 개별 목표를 선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준비하여 제시한다. 선수 학습으로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거나 관련 내용을 탐색하도록 하며, 적합한 표현 재료를 준비하도록 하여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수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한다.

. 전개단계: 학습자가 계획한 내용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 학습자의 수준과 능력에 따라, 개별적 과제 선택에 따라 개별적인 지도 및 조언을 하여 개별학습이 잘 이루어지도록 한다. 표현 내용에 따른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며, 재료와 용구에 대한 지도를 함께 한다. 학습자의 표현 능력을 진단하고 작품 평가를 통해 학습 성취도를 확인한다. 협동 과제 수행시 모둠별 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며, 모든 학습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학습자들의 학습 활

註 65) 전계서. pp.186-188.

동 과정을 관찰하여 기록한다.

. 정리 단계: 학습자들이 자신의 학습 활동과 학습 결과물에 대해 생각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학습 과정에 대한 생각이나 소감을 기록하거나 발표하도록 하며, 자신의 작품 및 친구의 작품에 대해 평가하도록 한다. 자기 평가 및 상호 평가표의 활용 또는 미술 일기장을 마련하여 미술 시간에 있었던 일을 전반적으로 기록하도록 하여 교사와 학습자를 위한 피드백⁶⁶⁾ 자료로 활용한다.⁶⁷⁾

현행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은 21세기의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의 육성을 그 기본 정신으로 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을 통해 추구해야 할 인간 특성으로 전인적 성장의 바탕 위에 개성을 지향하는 인간, 기초 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인간, 교양과 직업적 능력을 겸비한 인간, 전통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민주적 공동체에 헌신하는 인간을 제시하고 있다.

즉, 미술교과 교육에서는, 첫째, 생활에서 미적 대상을 발견하고 느낄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정서를 풍부하게 해주며, 미술을 생활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도록 하고, 둘째, 동기유발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욕구를 북돋워주고, 주제, 표현방법, 조형요소와 원리, 재료와 용구 등에 관한 체험 탐색활동과 능동적인 표현활동을 통해 느낌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며, 셋째, 미술품에 대한 개인적인 반응이나 판단을 존중하고, 창의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며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서 미술을 이해하고 애호하는 태도를 가지게 하며, 전통미술에 대한 자긍심을 길러 미술 문화 창조에 기여하도록 강조한다. 이러한 통합적 양상은 현대미술 사조의 흐름에서도 나타난다. 예컨대 미술과 무용의 결합, 미술과 음악의 결합 등 예술 간의 통합뿐 아니라 미술 안의 장르간의 결합, 즉 서양화와 한국화의 구분이 애매해지고, 조각 작품과 소조작품의 구분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매체와 장르에 얽매이지 않고 평면과 입체의 구분마저 어려운 작품들이 쏟아지고 있는 현상이 그러하다.⁶⁸⁾

註 66) 피드백(feedback) : 어떠한 행위를 마친 뒤, 그 결과의 반응을 보아 행동을 변화시키는 일.

67) ㉞한국교육과정평가원, 『중등학교 교사용 미술지도서 (실험용)』 (서울: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2001), pp.8-12.

자아는 한 개체가 외부와의 접촉을 통한 사회화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런 자아의 형성이나 실현은 조화롭고 균형 있는 삶의 영위를 돕는 통합적 학습의 과정으로 가능하다.

통합교육의 필요성을 교사용 지도서에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첫째, 학생발달 면에서 볼 때, 이시기의 아동들은 아직 미분화 상태이므로 교과 내용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보다 제재를 한 단위로 관련되어 있는 활동으로 묶어 통합적 입장에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학습지도 면에서 볼 때, 이 시기의 아동들은 지속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련활동을 통합하여 다양한 소재거리를 제시함으로써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다.

셋째, 교과의 내용 면에서 볼 때, 초기단계에서는 교과 간에 서로 유기적인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한 교과의 활동이 다른 교과의 활동을 위한 자료나 단서가 되기 때문에 내용과 활동을 제재단위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경험의 측면에서 볼 때, 아동들은 주변 생활의 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중심으로 학습함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제재는 친근한 것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⁶⁹⁾

한편, 최근 수십 년간 미국의 일반교육뿐만 아니라 미술교육의 흐름을 대변하고 있는 다문화주의 또는 다문화 미술교육인 DBAE⁷⁰⁾가 대두되면서 작품제작활동에 주안점을 두어온 전통적인 교수법으로부터 미술의 통합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이론 영역의 지각과 작품제작활동의 융합으로 한 총체적인 미술교육 방법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학습내용은 미술의 지각, 창조, 이해, 판단을 하는 조형 활동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학생은 자신이 실행하는 미술 분야의 학습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註 68) ㉞조성자, “미술교육에서의 교육과정 통합에 관한연구” (석사논문, 공주교육대 교육대학원, 2004), p.39.

69) ㉞하진숙, “통합 지도를 통한 미술 수업의 지도 방안 연구” (석사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1997), pp.19-22.

70) DBAE(Discipline-Based Art Education) : 용어는 ‘미술이해에 기초한 총체적 미술교육’이라는 미술교육의 새로운 개념으로 미술을 작품제작활동, 미술사, 미학, 미술 비평의 네 분야로 보고, 이 네 분야가 미술교육 속에서 통합되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하나의 교수 방법이다. 채정안 <DBAE모델에 근거한 한국 전통미술 교육과정 연구> pp.21-23 참조,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0

서 미학이나 미술사에 관한 탐색을 실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교사는 다양한 학습지도 방법을 연구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통한국미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한국 전통 조형물을 직접 감상하고 만들어 보는 방법이 전통미술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⁷¹⁾

〈표 - 4〉 통합형태의 수업내용

차시	수업제재	수업내용
1, 2 /16	민화의 감상과 적용	* 민화그림에서 전통 문양의 내용 조사 * 문양을 활용하여 카드 만들기
3, 4 /16	민화그림 그리기	* 봄을 주제로 한 수업 * 세화 그리기 * 태극 팔괘도 그리기
5, 6 /16	문자도 그리기	* 문자도에 들어 있는 의미 알아보기 * 한글을 소재로 글자 꾸미기
7, 8 /16	우리들의 풍속그림 그리기	* 김홍도의 그림감상 * 아동들의 생활모습그리기
9, 10 /16	사군자 그리기	*매, 난, 국, 죽의 의미알기 *각각 표현해보기
11, 12 /16	책거리 그리기	* 아이들의 책거리 그림 만들기
13, 14 /16	음악 듣고 표현하기	* 정악이나 국악의 창작음악을 듣고 표현하기
15, 16 /16	생활 소재의 표현	* 자연미 감상을 통한 공판화 만들기 * 창살의 문양

중등학교 학생의 단계에서 조형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통합적 교육은 생활 속에

71) ㉞채정안. “DBAE 모델에 근거한 한국전통 미술 교육과정연구.” 석사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2000.

서 학생이 능동적으로 표현활동을 하고 환경에 대응하며 그 결과 다양한 것들을 획득해 나가는 인간의 삶과 연결된 능력을 기른다는 목표 아래에서 학생들에게 다른 교과와의 연계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통합 학습의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완성작품의 조형성을 요구하기보다는 먼저 재료와의 만남, 재료를 사용한 전개 과정의 흥미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즉 학생이 영위하는 활동을 형이라는 창을 통해서 보기 이전에 재료의 어떤 점에 흥미를 가지고 거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체적으로 생각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⁷²⁾

따라서 사군자를 이해하기 위해 전통소재 수업의 학습과정에서의 준비과정은 아동들이 조상들의 생활과 관련된 과제와 발표시간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학습의 준비과정은 전 시간 학습의 과제 제시 시간에 교사의 설명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새로운 수업모형은 차시 발상 지도와 과제를 통한 구상지도로 통해 깊이 있는 발상이 이루어지고, 사군자를 표현하고자 하는 의욕을 나타내고자 전통문화 또는 소재를 학습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하여야 한다.⁷³⁾

註 72) ㉠한국교육평가원, 『초등학교 교사용 미술지도서 2학년』(서울: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2001), pp.30-31.

73) ㉠김현미, “관찰을 통한 미적 체험활동 중심의 통합지도로 창의적인 미적 표현력 신장” (석사 논문, 청주교육대학원, 2004), p.50.

IV 사군자 교수-학습의 실제

1. 지도 시 유의사항

효과적인 수업을 위하여 전통미술의 한 영역으로 판소리나 대금, 아쟁 등의 음악을 틀어 놓고 전통에 대한 새로운 접근의 기회를 만드는 것이 좋으며 교사는 다양한 전통에 대한 느낄 수 있는 장르를 직·간접적으로 느끼게 하고 학생이 가지고 있는 전통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하며, 다양한 발상의 전환점이 되도록 학습효과를 높인다.⁷⁴⁾

학생들이 사군자에 대해 관심과 이해를 갖고 이에 대한 수업 계획 및 준비가 체계적으로 되어야하며, 타 영역에 비해 사군자 교육에 대한 지도 방법이나 관련 자료들을 다양하게 수집하도록, 동기유발 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그리고 효과적인 학습을 위하여 다양한 자료와 매체를 활용함으로써 동기유발은 물론 학습효과를 극대화 시키도록 한다.

2. 한국화 재료의 이해

표현에 있어서 재료와 용구는 주제나 표현 방법에 맞게 선택하여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모든 회화 활동의 재료의 중요성에 대해서 루돌프 아른하임(Rudolf-Arnheim)⁷⁵⁾은 「미술과 시지각(Art And Visual Percept)」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재료는 그림을 있게 해주는 실질적인 도구이다. 재료의 고유한 성질에 따라 기법이 형성되며 기법과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의 내용까지 변화와 제한을 둘 수 있는

註 74) ㉔현문철, “중등미술교육의 사군자 지도방법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 대구카톨릭교육대학원, 2004). p.45.

75) 루돌프 아른하임[Rudolph Arnheim 1904~?] : 독일 출생. 독일 미술비평가·예술심리학자

것이다.”⁷⁶⁾ 이런 견해로 보아 모든 회화 활동에서의 재료는 감정을 표현하기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사군자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용구인 문방사우⁷⁷⁾라고 칭하는 벼루, 먹, 붓, 종이 등의 특성과 종류 및 사용 시 유의점과 보관법을 간단히 알아보자.

1) 벼루

벼루는 한국, 일본, 중국 등이 그 주산지이다. 한국산으로 대표적인 것은 해주산 보령석이고, 충남 보령의 남포석, 백운상석, 충북의 단양석, 경남의 합천석, 경북의 안동석 등이 유명하다.⁷⁸⁾ 대개는 돌로 만들지만 와연(瓦硯)⁷⁹⁾, 도연(陶硯)도 있고 옥·유리·비취·수정 등 보석류라든가 금·은·동·철·목(木)·죽(竹) 등으로도 만든다. 벼루가 갖춰야 할 첫째 조건으로는 먹이 잘 갈리고 고유의 묵색이 잘 나타나야 한다. 연당⁸⁰⁾의 표면에는 숫돌과 같은 꺼끌꺼끌한 미세한 봉망(鋒芒)⁸¹⁾이 있어 여기에 물을 붓고 먹을 마찰시킴으로써 먹물이 생긴다. 따라서 봉망의 강도가 알맞아야 한다. 봉망이 약하면 먹이 잘 갈리지 않고 반대로 강하기만 하면 잘 갈리기는 하나 먹빛이 좋지 않다.⁸²⁾ 벼루의 질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벼루를 누르거나 힘을 주어서 갈아서는 안되며, 사용 후 깨끗이 씻어 내야한다. 벼루에 먹의 찌꺼기는 먹색을 탁하게 하고, 벼루를 상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림1>

2) 먹

먹은 중국에서 가장 오래 전에 발달해 왔지만 송대에 이르러서 오늘날과 비슷한

註 76) ㉔Arnheim Rudolf, 『Art And Visual Percept(미술과 시지각)』, 김춘일 역 (서울: 민선사, 1981), p.140.

77) 문방사후(文房四候)라고도 칭한다.

78) ㉔민상덕, 『서예란 무엇인가』 (대구: 대구서학회, 1992), p.161.

79) 와연(瓦硯) : 기류로 된 벼루. 도연[陶硯]이라고도 한다. 고대 중국의 한대(漢代)에는 판상(板狀)의 돌벼루[石硯]를 사용하였으나, 후에 풍자형(風字形)·원형(圓形)의 와연(瓦硯:기와류로 된 벼루)을 사용하였으며, 수(隋)·당(唐)나라 때 성행하였음.

80) 연당 : 먹을 가는 부분

81) 봉망 : 끝, 앞장의 뜻으로 ‘뾰족한 끝’의 뜻.

82) <http://100.naver.com>

먹이 상당한 규모로 만들어 졌다는 것이 확실해 진다. 제묵법⁸³⁾이 개량된 것은 한 시대부터 이며 질이 좋은 것은 유니산과 종남산의 소나무에서 취한 송연묵(松煙墨)이라고 한다. 송연묵은 소나무를 태워서 그을음을 모아 거기에 아교를 혼합해서 굳힌 것⁸⁴⁾으로 입자가 가늘고 아교성분이 적으며 색이 검고 소리가 맑아야 한다.⁸⁵⁾ 먹은 단단하고 향기는 은은한 것이 좋으며, 손으로 두드려 보아서 소리가 맑고 쇠소리가 나야 한다. 이런 질 좋은 먹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급히 갈아서는 안되며 거품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갈아야 한다. 그리고 사용 후에는 물기를 잘 닦고, 너무 건조하거나 습한 곳은 피해서 보관한다.<그림2>

3) 붓

우리나라의 붓이 전래된 시기는 대개 삼국시대로 추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로서 짐승의 털로 만든다. 털 종류에 따라 양호, 황모, 낭호, 서모 등이 있고 길이에 따라 장봉, 중봉, 단봉이 있으며, 성질에 따라 강호필, 유호필로 나뉘고 붓의 크기에 따라 대, 중, 소로 구분한다.⁸⁶⁾ 붓은 탄력이 있어야하고 붓의 털이 가지런하고 털이 모나게 사용하지 않으며, 사용 후에는 물에 잘 씻어서 물기를 완전히 뺀 후 붓털을 가지런히 하여 통풍이 잘 되는 음지에 걸어서 보관한다.<그림3>

4) 종이

종이를 최초로 발명한 나라는 중국으로 1500여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것으로 부드럽고 질기기가 명주와 같으며 희기가 백설과 같아 무늬와 결이 깨끗하면서도 치밀하여 쉽게 찢지 않으며 벌레나 곰이 잘 쓸지 않고 변색이 잘 안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⁸⁷⁾ 종이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선지(宣紙)⁸⁸⁾

註 83) 제묵법 : 먹을 만드는 방법.

84) ㉞이점노, 『문방사우』(서울: 대원사, 1990), p.89.

85) ㉞민상덕, 『서예란 무엇인가』, (대구: 대구서학회, 1992), p.161.

86) ㉞현문철, “중등미술교육의 사군자 지도방법에 관한 연구”(석사논문: 대구카톨릭교육대학원, 2004), p.46.

87) 민상덕 저, 광노봉 역, 『서예란 무엇인가』, 대구서학회, 1992, p.162.

88) 선지(宣紙) : 서화에 쓰이는 중국 종이.

라고 하는데 이 밖에도 마지(삼배), 저지(닥종이), 한지 등 여러 종류가 있다.

한지의 특수성은 수명이 길고 보온성과 통풍성이 좋고, 자연과 친화하는 성질이 있다. 한지의 제조 과정은 일백 번의 손을 거친다 하여 일명 “백지(白紙)”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다. 한편 유성출판사의 “묵화기법(墨畫技法)”을 보면 우리나라 종이 종류로는 고려지, 마지, 화선지, 미농지, 아방지 등으로 나누고 있다.⁸⁹⁾ 중학교에서는 주로 화선지나 옥당지를 많이 사용하는데 화선지는 얇아 먹이 잘 번지는 반면에 옥당지는 두꺼워 일반 화선지에 비해 먹이 잘 번지지 않는다. 화선지는 부드러운 면이 앞면이며, 먹의 흡수와 농도가 투명하게 나타나는 화선지가 좋다. 보관은 습기와 직사광선을 피하여 바람이 들지 않게 비닐에 넣어 밀폐시켜 보관하는 방법이 좋다.<그림4>

5)연적

벼루에 먹을 갈 때 쓸 물을 담아두는 그릇으로, 수적(水滴)이라고도 한다. 그 형태는 다양하다. 물이 나오는 부위와 물과 공기가 들어가는 구멍을 두어 쉽게 물을 넣어서 쓸 수 있게 되어 있다.<그림5>

6)기타

기타 재료는 화선지 밑에 까는 모포⁹⁰⁾, 종이가 움직이지 않게 눌러주는 문진, 물감이나 농담을 조절하기 위한 접시, 붓의 물을 흡수하기 위한 걸레, 물통, 붓말이⁹¹⁾ 등이 필요하다.<그림6>

3. 사군자의 표현 방법

註 89) ㉔유성출판사 편집부, 『묵화기법』 (서울: 유성출판사, 1980), p.13.

90) 모포 : 깔개라고도 함

91) 붓말이 : 붓이 상하지 않게 말아 보관하는 곳.

<표 - 7> 붓의 사용법

구분	집필법	완법
잔글씨	단구법 <그림7-1>	침완법 <그림7-3>
중글씨	쌍구법 <그림7-2>	제완법 <그림7-4>
큰글씨	오지법 <그림7-2>	현완법 <그림7-5>

붓의 사용법에는 집필법과 완법이 있는데, 집필법에는 잔글씨를 쓸 수 있고 엄지와 집개손가락으로 붓대를 쥐고 나머지 손가락으로 붓대를 떠받치는 단구법, 큰글씨를 쓰고 엄지와 집개, 중지로 붓대를 쥐고 나머지 두 손가락으로 붓대를 잡는 쌍구법이 있다. 쌍구법은 비교적 단구법보다 안정적이다.

완법에는 왼손을 오른손목에 받치고 쓰는 침완법, 오른팔을 책상에 가볍게 대고 팔목 부분만 올리고 쓰는 방법의 제완법이 있으며, 오른팔을 들고 쓰는 가장 자유로운 방법인 현완법이 있다.

<표 - 8>기본 기법 지도

구분	지도내용	
기법	삼목법	농, 중, 담묵의 세 가지 먹색으로 입체적 표현이 가능 <그림8-1>
	퇴묵법	붓의 마지막 먹색으로 먹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붓을 이용 <그림8-2>
	갈필법	붓에 물기를 적게 하여 붓의 터치가 거칠게 나오도록 하는 방법 <그림8-3>
묘법	백묘법	채색 없이 먹선의 변화만으로 그림 기법 <그림8-4>
	구름법	윤곽선을 그린 후 그 안에 채색, 먹칠하는 기법 <그림8-5>
	몰골법	먹선 없이 채색 또는 먹선으로만 그리는 기법 <그림8-6>
	감필법	운필을 절제하여 일품으로 내면을 표현하는 기법 <그림8-7>

<표 - 9> 조형요소 표현하기

구분	지도내용
점	크고 작은 점, 여러 가지 점찍기<그림9-1>
선	여러 가지의 선 긋기<그림9-2>
농담	붓에 먹을 섞어 농, 중, 담 나타내기 농담 표현 방법 익히기<그림9-3>

<표 - 10> 매화 그리기

구분	지도내용
매화	<p>◆가지 그리기</p> <p>매화의 가지는 줄기에서 나온 늙은 가지, 자란 가지, 어린가지가 어울려 골격을 이룬다. <그림10-1>늙은 가지는 굵고 거칠게 그려 줄기와 어린 가지를 잇고 그림에 균형과 구도를 결정지어 준다. 늙은 가지는 담묵으로 붓을 끌듯이 긋고, 가지는 난 잎처럼 곡선이 되거나, 대나무의 가지처럼 직선이 되는 것을 피한다. 가지의 방향은 평행이 되거나 잔가지의 길이가 서로 같지 않게 그리며, 꽃을 그릴 자리와 그릴 꽃의 수를 염두에 두고 가지의 수도 이에 맞게 그린다. <그림10-2></p>
	<p>◆줄기 그리기</p> <p>줄기를 그리는 방법에는 줄기의 윤곽선을 그리고 나서 그 위에 흐린 먹으로 칠하는 방법 즉 구름법과 윤곽선이 없이 붓의 측면을 사용하여 거칠게 그리는 방법, 백묘법이 있다. 늙은 줄기나 가지에는 군데군데 점을 찍어 줄기에 있는 웅이나 이끼, 거친 껍질을 나타낸다. <그림10-3></p>
	<p>◆꽃 그리기</p> <p>꽃잎은 얇은 담묵으로 원을 그리듯이 한 번에 한 잎씩 다섯 잎을 그린다.</p>

매화	<p>붓을 바로 잡아 한 잎을 그리더라도 손끝으로 그리지 말고 팔 전체를 움직여 다섯 꽃잎을 연속해서 그려본다. 한 잎 한 잎이 완벽한 동그라미가 되게 그리지 말고 약간 타원형에 가깝게 그린다. <그림10-4></p> <p>◆가지에 꽃 그리기</p> <p>먼저 정면을 향한 꽃을 그리고 그 옆에 옆을 향한 꽃, 뒤에 보이는 꽃을 그려 안정감을 만든다. 한 가지에는 활짝 핀 꽃을 한송이 이상 그리지 말고 옆을 보는 꽃이나 반쯤 핀 꽃을 그린다. 가지가 많은 곳에는 많은 꽃과 꽃봉오리를, 적은 데는 적게 붙인다. <그림10-5></p>
----	---

<표 - 11> 난 그리기

구분	지도내용
난	<p>◆첫째잎 그리기</p> <p>첫 잎의 길이와 방향, 굵기는 난의 균형미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므로 심사숙고 하는 마음 자세가 있어야 한다. 먼저 붓을 씻고 젖은 형겔에 물기를 뺀 다음 짙은 먹물을 묻힌다. 붓은 중간보다 조금 위로 잡는다. 붓이 나갈 방향과 반대로 약간 그은 다음, 원하는 방향으로 그어간다. 이때 붓끝은 선의 정중앙에 있게 한다. 중간 지점에 와서는 붓에 힘을 약간 빼어 잎이 뒤집혀진 느낌을 낸다. 잎의 끝부분에 와서는 붓을 빨리 굵지 말고 천천히 종이 위에서 떨어지게 하여 쥐꼬리 모양이 되게 한다. <그림11-1></p> <p>◆둘째잎 그리기</p> <p>첫째잎의 2/3 지점에서 교차시켜 봉황새의 눈모양이 되게 한다. 첫째잎은 창공을 향하여 끝없이 나아가듯 굵고 둘째잎은 땅을 향하게 한다. (첫째잎보다는 조금 길게) 두 잎의 끝 방향이 같지 않게 하면서 너무 짧거나 길게 하는 것을 피한다.<그림11-2></p>

◆셋째 잎 그리기

첫째 잎, 둘째 잎이 교차된 공간(봉황새 눈모양)을 지나가는 잎이다. 두 잎이 한 방향으로 향한 불균형을 바르게 하기 위해 반대 방향으로 굽는다. 셋째 잎은 두 잎중 어느 한 잎에 끝(뿌리)이 붙게 그려 세 잎이 서로 떨어진 느낌이 안들게 한다. 셋째 잎의 방향은 봉황새 눈모양 정중앙을 피해서 첫째 잎의 높이를 생각하여 길이를 정한다. 난 잎은 뿌리에서 나오므로 뾰뾰함이 있게 하여야 하며, 길고 짧게, 굵고 가늘게 싱싱하고 메마르게 등 다양한 변화를 주는 것이 좋다. <그림11-3>

◆넷째, 다섯째 잎 그리기

복잡한 구성의 난도 이 구성이 기본이 되므로 착실히 연습해 두면 좋다. 기본적인 세 잎을 그리고 나서 왼쪽, 오른쪽에 늙은 잎, 마른 잎 두세 개의 잎을 그려 넣어서 세 가닥 잎의 단순함을 피한다. 밑 부분의 번잡함을 피하고 정리가 되어 보이게 뿌리 부분을 감싸듯이 선을 굽는다. 가능한 붓에 한번 문힌 먹으로 다섯 잎을 단숨에 그려 선에 윤기와 메마름이 나타나게 그려린다. <그림11-4>

◆꽃잎 그리기

잎그리는 연습이 어느 정도 되면 꽃을 그려본다. 꽃은 잎과 달리 얇은 담묵으로 그려 잎의 짙은 먹과 대비시킨다. 난 꽃은 난의 종류에 따라 크기, 모양, 색깔이 다양하며 한 개의 꽃대에 한 송이 꽃이 피는 춘란과 여러 개의 꽃이 피는 혜란의 두 종류가 있다.<그림11-5>

◆꽃술(심) 그리기

꽃을 그리고 나서 꽃잎 중앙에 짙은 먹을 찍어 꽃술(심)을 표현한다. 흐린 먹으로 꽃잎을 그리고 나서 마르기 전에 점을 찍듯이 하여 짙은 먹이 흐린 먹으로 스며 퍼지는 효과를 낸다. 점은 신속하고 빠른 붓놀림으로 해야 생기가 넘치는 꽃이 된다. 먹점을 찍어 꽃을 표현하는 것은 실제의 난 꽃과는 모양이 다르나 난의 상징성을 표현하는 것이다.<그림

난	<p>11-6></p> <p>◆꽃을 가지에 붙이기</p> <p>꽃대에 꽃을 붙이는 요령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수록 꽃의 간격을 넓게 하고 꽃대를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 번갈아 붙인다. 꽃대 끝에 꽃봉오리를 그리고 차츰 아래로 내려오면서 반쯤 핀꽃, 활짝 핀꽃 순으로 그린다.<그림11-7></p>
---	--

<표 - 12>국화 그리기

구분	지도내용
국화	<p>◆꽃잎 그리기</p> <p>우선 붓에 농담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든 다음 십자상으로 네 개의 꽃잎을 그린다. 이때에 직필로 2필에 의해서 그리는데, 꽃잎 끝이 밀착해서 방추형과 같이 뾰족하게 되지 않도록 그리며, 신속히 운필해야 하고 안에서 밖으로 또는 밖에서 안으로 적절히 운필해야 한다.</p> <p>그 다음 꽃잎과 꽃잎 사이에 한 개씩 꽃잎을 더하여 8판이 되게 하고 같은 요령으로 차츰 꽃잎 수를 더하여 16판 등 만개한 꽃의 모양을 갖추는데 주의할 점은 처음에 그린 네 개의 꽃잎의 형태만 완전하게 하고 더한 꽃잎들은 처음 것의 뒤로 숨게 하는 것이 좋다. 또한, 꽃잎의 구성이 너무 규칙적인 것 보다는 꽃잎의 크기와 위치를 변화 있게 그려서 자연미를 주어야 한다.</p> <p><그림12-1></p> <p>◆꽃술그리기</p> <p>꽃잎을 그리고 나면 꽃술을 그려 넣는데, 이것을 심점(心點)이라고 한다. 꽃의 종류에 따라 거의 눈에 띄지 않는 것도 있고 들국화와 같이 확실한 것도 있다. <그림12-2></p>

국화	<p>그러나 대국은 꽃술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그리는 것이 일반적인 예다. 꽃술을 그릴 때에는 작은 점을 많이 찍거나 몇 개만 찍어 필(必)자와 같은 것을 그려 넣는다. 양부위를 담묵으로 칠한 다음 붓끝에 농묵을 찍어 담묵 위에 직필로 점을 찍어 나가는데 위와 위치하는 일이 없다. 꽃술에 색을 넣는 경우 황색을 먼저 칠한 다음 조금 마르면 농묵으로 같은 요령으로 찍으면 된다.</p> <p>◆꽃봉오리 그리기</p> <p>꽃봉오리에는 딱딱하고 작은 것부터 반쯤 핀 것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가 있다.</p> <p>꽃봉오리의 꽃대는 짧으나 꽃이 피어가면서 점점 길어진다. 그러므로 한 가지 안에서 꽃봉오리가 활짝 핀 꽃은 높은 곳에 위치하는 일이 없다.</p> <p><그림12-3></p> <p>◆꽃받침 그리기</p> <p>꽃받침은 꽃의 방향이 옆으로 향하거나 뒤로 향할 때만 농묵으로 표현하는데 3~4점, 뒷면일 때 5~6점은 방사형으로 찍고 중심부에는 꽃대를 그린다.</p> <p><그림12-4></p> <p>◆잎과 잎맥 그리기</p> <p>잎은 다섯 갈래로 나뉘어져 있고, 잎의 묵색은 농담이 한데 어울려 조화를 이루기도 하고 잎의 전면과 후면이 구별이 되어야 하는데 전면일 때는 농묵으로, 뒷면일 때는 중묵이나 담묵으로 그린다. 붓 전체를 담묵으로 만든 다음 압지를 사용해 적당히 물기를 빼고 붓 끝에 농묵을 찍은 후 접시에 좌우로 2~3회 문지른다. 그런 다음 잎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잎 맨 끝의 한 갈래를 먼저 측필로 그리고, 다음 좌우 순서로 농묵으로 잎맥을 그리는데, 이것을 점엽법(點葉法)이라 한다. 네 갈래를 각각 측필로 잎이 마르기 전에 그린다. 잎맥은 농묵으로 마지막에 그리는데 사실적이고 복잡한 잎맥은 피하고 간략하고 상징적인 잎맥을 그린다. 지맥이 주맥에서 나올 때 좌우 하</p>
----	--

국화	<p>나뭇잎 엇갈려서 나와야지 고기의 뼈와 같이 마주 나오면 안 된다. 잎맥은 붓의 끊어짐은 있되, 기운은 연속되어야 한다. 즉 작은 선으로 표현하는 것이기에 더욱 신경을 써서 강직한 선으로 표현함이 좋다. <그림12-5></p> <p>◆줄기와 가지 그리기</p> <p>줄기는 대개 위에서 아래쪽으로 그어 내리는 것이 보통이며 가지는 줄기에서 바깥쪽으로 그린다. 또한 잎의 뒤에 가려지는 부분이 많아야 하고 줄기와 가지를 다 그린 후에라도 적당한 부분에 잎을 첨가하여 전체적인 구도를 짜임새 있게 한다. 줄기를 그릴 때는 붓에 물기를 많이 해서 안되고, 그어 가면서 순간 멈추어 필을 축적했다가 방향을 약간씩 바꿔 변화를 주며 곳곳하고 강직하게 그려야 한다. 줄기와 가지는 구도에 따라 늘어진 것, 위로 향한 것, 높거나 낮은 것 등 변화를 주어 짜임새 있는 구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림12-6></p> <p>◆잎을 줄기와 가지에 연결하기</p> <p>가지에 잎을 붙일 땀 농묵, 중묵, 담묵으로 처리한다. 즉, 진한 잎 뒤엔 연한 잎으로 연한 잎 뒤엔 진한 잎을 붙여 처리해야 앞, 뒤의 구별이 된다. 잎은 가지의 한 지점에서 두 개가 함께 나오지 않게 하고 잎과 가지가 서로 엉켜 뻗뻗한 곳과 성긴 데가 있어야 하며 난잡함을 피해야 한다.<그림12-7></p>
----	--

<표 - 13>대나무 그리기

구분	지도내용
대 나 무	<p>◆줄기그리기</p> <p>대나무는 뿌리 부분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마디가 길어지고 중간 마디에서 부터 짧아지고 가늘어진다. 줄기의 생동감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한 줄기를 한번 적신 먹으로 끝까지 그려야 한다. 여러 줄기를 그릴 때는 원근을 생각 하여 앞에 있는 줄기는 중간 먹으로 그리고 뒤에 있는 줄기는 흐린 먹으로 그린다. 마디가 나란히 되는 것, 세 줄기가 한 지점에 되는 것은 피한다.</p> <p><그림13-1></p> <p>늙은 줄기는 마디를 짧고 굵게 그리고, 어린 줄기는 중간 먹으로 그려 입체감을 준다. 여러 개의 줄기를 그릴 때는 반드시 굵고, 가늘고, 성글고 뾰뾰한 곳이 있게 그린다. <그림13-2></p> <p>◆마디그리기</p> <p>마디 그리기는 눈높이에 따라 그리는 양상이 달라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수평위치에 있는 마디를 그리는 경우가 많으며 여기에서도 수평의 눈높이에서 그리는 것을 기술한다. 줄기를 그리고 먹물이 마르기 전에 짙은 먹을 붓끝에 찍어 마디를 그린다. 마디는 눈높이에 맞게 아래 부분은 내려다보듯이 그리고 중간 마디는 눈높이가 같으므로 일자 모양으로, 윗부분은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듯이 위가 둥글게 그린다. <그림13-3></p> <p>◆가지그리기</p> <p>큰가지를 그리고, 가지의 마디에서 작은 잔가지를 붙여 간다. 붓끝 모양을 못머리 모양처럼 둥글게 하고 가지 끝에서도 붓을 빨리 빼지 말고 멈추듯이 떼낸다. 대나무 가지는 참새의 발, 물고기의 뼈, 사슴의 뿔 모양이 되게 그려서는 안된다. <그림13-4></p>

	<p>◆잎과 가지</p> <p>대나무의 가지는 무성한 잎을 지탱하는 만큼 앞으로 그릴 잎의 수에 맞게 가지를 붙인다. 많은 잎을 그릴 경우는 잔가지를 많이 그린다.<그림13-5></p> <p>◆잎그리기</p> <p>위로 향한 잎그리기</p> <p>대 나 무 갓 피어난 어린잎과 작은 가지 끝에 난 잎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기러기가 날아오는 모양처럼 가지를 사이에 두고 V자 모양이 되게 그린다. <그림13-6></p> <p>아래로 향한 잎그리기</p> <p>대나무 잎을 그리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맑게 갠 날이나 비에 젖은 잎을 표현 하는데 적절한 기법이다. 한 가지에 5~8개의 잎이 붙는 것을 생각하여 중앙에 있는 잎을 크고 길게 그리고 왼쪽, 오른쪽 잎을 작고 짧게 그린다. <그림13-7></p>
--	---

4. 사군자 교수_학습지도안

1) 단원 설정 이유

우리 미술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인 서구화 일색의 미술교육에서 벗어나 우리 정서에 맞는 전통회화 중 문인화 교육을 통하여 옛 문인들의 정신과 멋을 느끼고, 사대부들이 군자적 삶을 지향하며 이상적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수 교양의 하나로 그려지던 문인화를 그려보는 기회를 갖는다.

본 단원은 전통 회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여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과 정서를 운택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학습의 의의가 있다.

2) 사군자 교수-학습계획

<표 - 14> 교수-학습지도

단원		사군자	제재	수목화	지시	1/1차
학습목표		1. 사군자의 개념을 안다. 2. 사군자의 종류와 특성을 안다. 3. 재료의 사용방법을 알고 난을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수업매체		교사		학생		
		교과서, 수업지도안, PPT, 참고작품		교과서, 작품계획서		
단계	학습요소	교수·학습활동				자료 및 유의점
		교사		학생		
도입	선수 학습 및 동기 유발	▶인사 ▶학습 목표 제시한다. ▶교과서의 도판을 보고 수목의 효과를 설명한다. ▶이 시간에 표현해야 할 수목 표현의 여러 가지를 보여주며, 재료와 기법의 활용도를 설명한다. ▶사군자가 표현된 작품을 보여주고, 형식, 표현재료, 느낌을 토의 발표하게 한다. ▶준비물을 점검한다.		▶인사 ▶학습 목표를 인지한다. ▶교과서의 여러 가지 도판을 보고 이해한다. ▶수목의 효과를 인지하고 다양한 수목 표현의 기법과 재료의 활용도를 본다. ▶작품을 보고 이에 나타난 느낌을 생각하고 느낌을 발표한다. ▶준비물을 갖춰서 나열한다.		PPT OHP 작품화보
		사군자의		▶사군자의 개념과 의의를 안다.		
전개	사군자의	▶전통문화를 이해시키고 사군자에 대한 시대적 배경과 의의		▶사군자의 개념과 의의를 안다.		흥미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난초 꽃, 줄기, 꽃술 지도. -삼목법 중 담목을 이용해서 꽃의 특징을 표현하도록 지도. ▶난초 그리는 순서를 다시 환기시킨다. -줄기→꽃→꽃받침→화심→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꽃술그리기. -순서 익히기. 줄기→꽃→꽃받침→화심→완성 	
정리	차시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구와 자기작품을 감상하게 하고, 발표 및 토의한다. <학생작품1, 2, 3, 4, 5> ▶포트폴리오의 기본 서식을 인지시킨다. ▶차시 학습 내용을 인지시키고 준비물을 확인한다. ▶주변을 깨끗이 정돈 시킨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구와 자기작품을 비교한다. ▶서로 보완할 사항과 미흡한 점을 발표한다. ▶포트폴리오의 서식을 알고, 작품은 포트폴리오로 제작한다. ▶다음시간 준비물을 확인한다. ▶주변을 깨끗이 정리·정돈 한다. 	상호평가

V 결론 및 제언

1. 결 론

이전의 교육과정에서부터 더욱 강조되어진 전통미술 교육은 계속 더 중요시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이러한 한국전통 미술 교육이 이루어지기에는 아직도 많은 부족한 점이 있다.

우선 현재 교사들은 한국화 전공자가 많이 없고, 우리의 전통미술교육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한국화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없을 정도이다. 교육과정의 ‘지도방법’과 ‘교과서 및 지도서의 편찬방향’에서 전통미술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이어서 교사의 관심도와 전공에 따라 학습효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 실제적인 표현활동에서 필수학습시간은 극히 적은 편이었다.

로웬펠트는 “미술교육이 아동의 지적, 정서적, 사회적, 지각적, 신체적, 창조적 미적인 면에 두루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고, Dewey는 “예술에 있는 모든 경험은 통합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완성 되어진”로 보고 “Learning by Doing(하면서 배운다)”에 의한 아동의 자발적인 경험에 의해서 배움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문인화는 단순한 기능이 아닌 인격수양의 방법이고, 자신의 내면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었다고 할 수 있기에 오늘날 미술교육이 지향하고 있는 전인적 인간 교육과 상통 할 수 있다. 결국 미술 교육을 통하여 자유로운 사고로 미를 느낄 수 있는 인간으로 기르는 것이 오늘날의 교과목표라면 문인화의 정신성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고 지향하는 미술교육 목표일 것이다.

2. 제언

우리는 동·서를 서로 다 같이 체험, 수용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자생적이면서 보편적인 미술교육이 가능하기 위해 먼저 객관적인 위치에서 우리의 전통 문화의 현 위치와 특수성이 무엇인지를 먼저 느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 주체적인 문화의식을 폭넓게 심어주기 위해 우리나라의 전통미술을 강조 할 필요성과 더불어 전통회화인 한국화를 중등교육에서 교육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효과라고 본다.

필수적으로 한국 전통미를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은 전혀 접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일이 발생될 것이고,⁹²⁾ 문인화는 지금의 청소년들에게 옛 시대의 유산으로만 의식되어 박물관에서나 보던 감상 품에 지나지 않으며,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 관심 밖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문인화 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 전통미의 주제를 현행 교육과정에 알맞게 학년별로 수준별, 단계별, 연계성, 통합성을 고려해서 선정하도록 하고, 각 영역별 중 서양화 수업으로 편중된 지도 시간을 고르게 배분하여 전통미의 이해교육과 더불어 문인화 교육의 필요성을 위한 학습시간을 좀 더 고르게 배분해야 할 것이다.

표현활동 지도 중 한국화의 문방사우 등의 표현재료와 용구의 선택 및 활용의 지도가 충분히 이루어져 다양한 발상과 표현을 하도록 지도하여, 전통미를 창의적이고 현대적으로 재창조 하여 문인화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교사용 지도 자료를 수집하고, 각 학급마다 정보통신매체 등의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을 수업에 적용함으로써 한국의 전통미의 근원인 문인화를 접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이 흥미를 잃지 않도록 주제에 알맞게 다양한 감상과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한 학기에 한 번 이상은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견학시키고, 감상보고서 또는 연구보고서 작성 등의 학습과 교사에게는 학생의 발달과정과 학생에게는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그동안 학습하였던 작품들을 수집하여 포트폴리오를 제작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수업 시간 외의 학습을 통해 흥미를 잃지 않도록 유지하도록 해야 한

註 92) ㉞문충길, “초등학교 전통미술교육에 관한 연구”(석사논문, 전남대학교, 2000), p.72.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군자 교육을 통하여 우리의 전통정신을 계승하여 발전시키고 학생들의 인성과 정서교육의 수단으로 교육현장에서 개발하여 지기를 바람으로 정리하여 보았다.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 교육부. 『중학교 미술 교육과정 해설』. 서울: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9
- 김 정. 『미술교육 역할이 한국 전통미 인식에 끼친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한국조형교육학회. 1989
- 김은경. 『새로운 미술교육 개선방안 연구』. 서울:상명여대 학생 생활연구소
- 김종태. 『동양화 사상』. 서울:일지사 .1984
- 문충길. 『초등학교 전통미술교육에 관한 연구』.광주: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2000
- 민상덕. 『서예란 무엇인가』. 대구:서학회. 1992
- 민상덕 저. 광노봉 역. 『서예란 무엇인가』, 대구:서학회. 1992
- 박소영 외 공저. 『제7차 미술과 교육과정 개발 연구』 서울: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0
- 서울특별시 교육청, 『제 7차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서울. 2000
- 서정아. 『사군자 사상의 회화사적 연구』 서울:동아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안선희. 『초등학교에서 한지작업을 통한 전통미술 지도』. 서울:한국교원대학교석사 학위논문, 1992
- 유성출판사 편집부, 『묵화기법』. 서울:유성출판사, 1980
- 이겸노. 『문방사우』. 서울: 대원사, 1990
- 이경성, 『미술입문』. 서울:문화교육출판사, 1962
- 李東州. 『우리나라의 옛그림』.서울: 박영사, 1984
- 이선옥. 『선비의 벗 사군자』.경기:보림출판사, 2005
- 『사군자의 상징성과 그 역사적 전개』, 서울:중앙일보사. 1982
- 이우진. 『로웬펠트와 아이스너의 미술교육 사상 비교연구』.서울:홍익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1998

- 이주연. 『DBAE란 무엇인가?』.서울:대한미술교육연구원, 1997
- 예원동호회. 『사군자묘법』.서울:예성출판사, 1999
- 장성연. 『문인화여행(장성연과 함께 하는)』.서울:이화문화출판사,2000
- 조영현. 『중등미술교육에 있어 문인화 지도에 관한 연구』.서울:홍익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2
- 조용진, 배재영. 『동양화란 어떤 그림인가』.서울:열화당. 2002
- 최완수. 『추사집』.서울:현암사, 1976
- 하진숙 『통합 지도를 통한 미술 수업의 지도 방안 연구』.서울: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7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중등학교 교사용 미술지도서 (실험용)』, 서울: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1
- 許英植, 『한국 목란화에 대한 연구』.서울:월간문화재, 1978
- 『五代 .宋 의 회화』, 서울:서문당. 1999
- 『中國畫論』, 서울:서문당, 1988
- 현문철. 『중등미술교육의 사군자 지도방법에 관한 연구』. 서울:대구카톨릭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4
- 채정안. 『DBAE모텔에 근거한 한국 전통미술 교육과정 연구』.서울: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0
- 최명자. 『전통미술 교육의 교과적인 지도방안 연구』.인천: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0
- 최관선. 『사군자기법』.서울: 우림출판사, 1995

외국문헌

Arnheim Rudolf, 김춘일 역, 『Art And Visual Percept』, 서울

웹사이트

<http://report.empas.com/report> 사군자의 상징성

<http://www.munseong.co.kr/seoyae/ran.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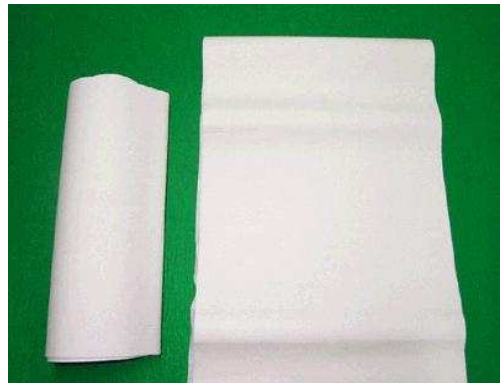
<그림-1 > 벼루



<그림-2 > 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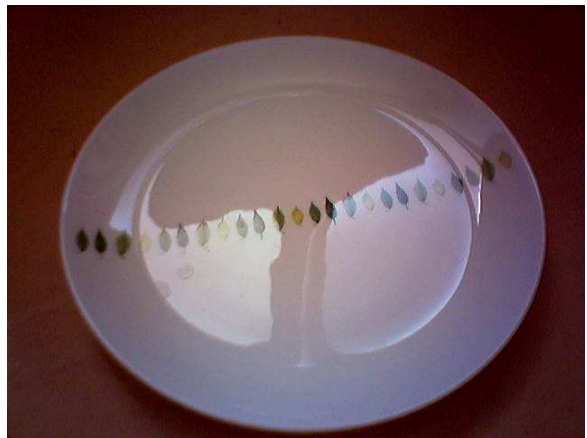
<그림-3 > 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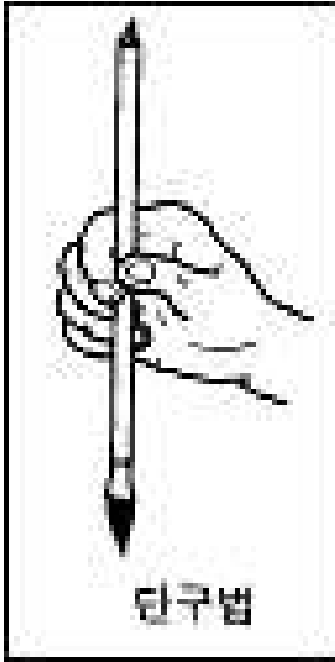
<그림- > 종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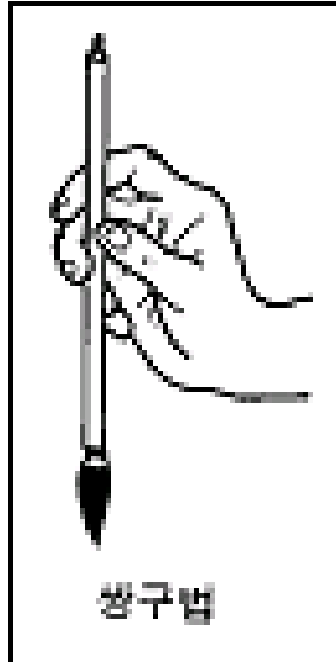
<그림- 5> 연적



<그림-6 > 기타 - 접시



<그림-7-1> 단구법



<그림-7-2 >쌍구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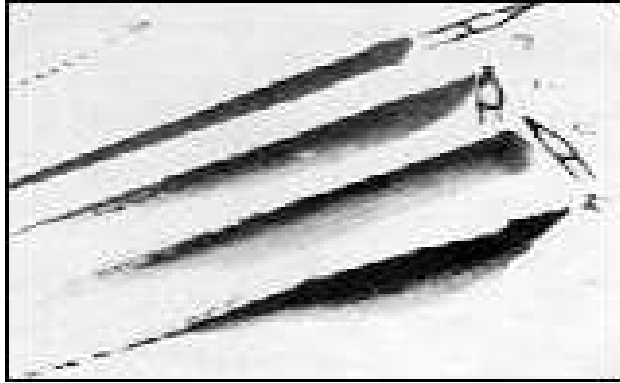
<그림-7-3>침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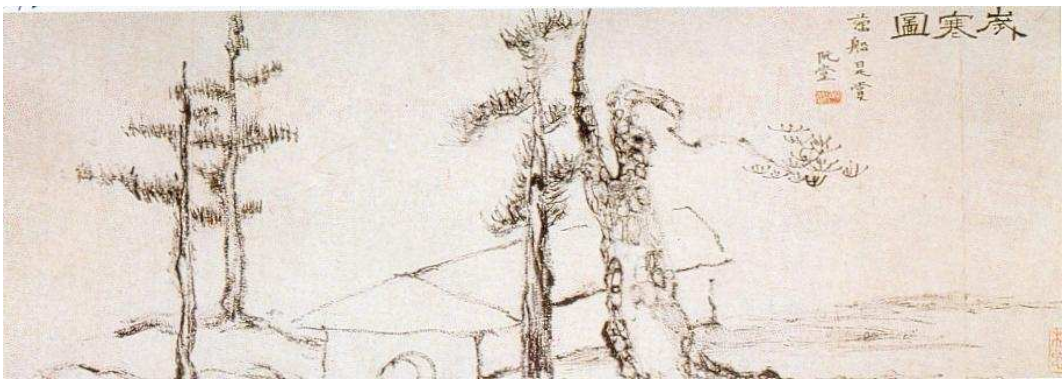
<그림-7-4 >제완법



<그림-7-5>현완법



<그림-8-1 >삼목법



<그림-8-2> 퇴묵법 <김정희/세한도>



<그림- 8-3>갈필법



<그림-8-4 >백묘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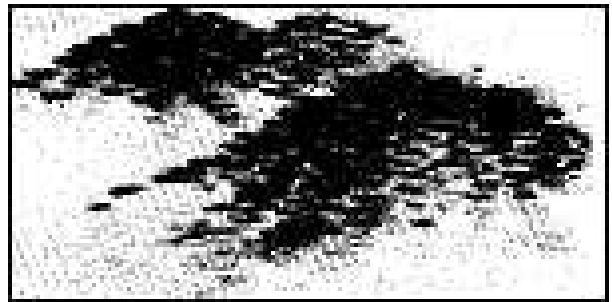
<그림- 8-5> 구름법



<그림-8-6 > 물골법



<그림 8-7> 감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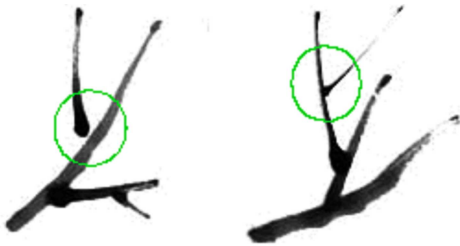
<그림-9-1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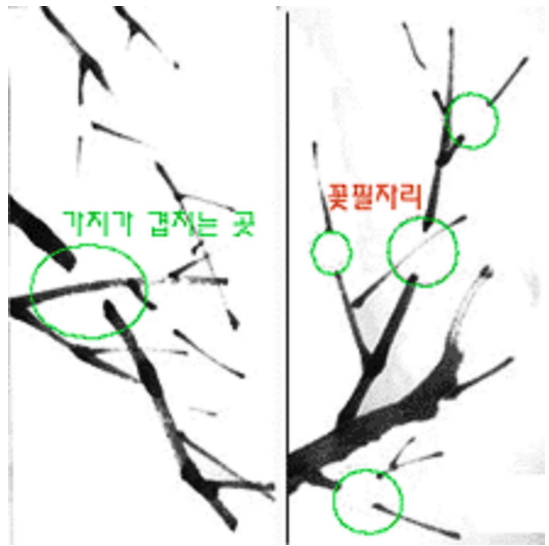
<그림 9-2> 선



<그림 9-3 >농담표현(삼목법)



<그림 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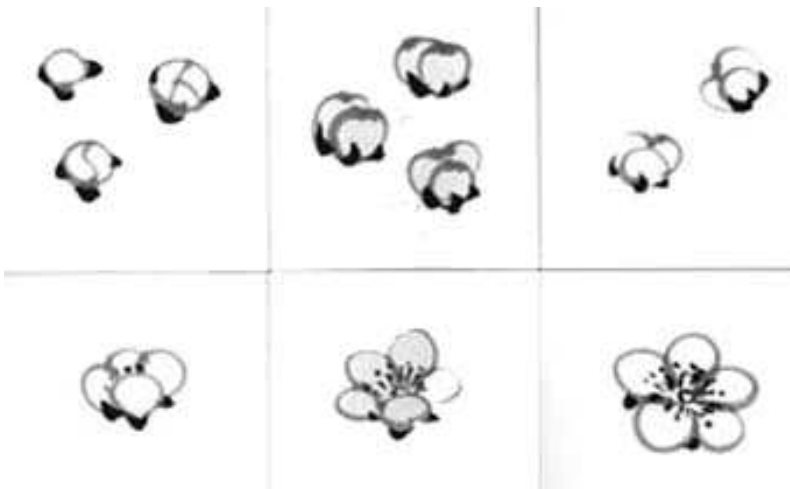
<그림 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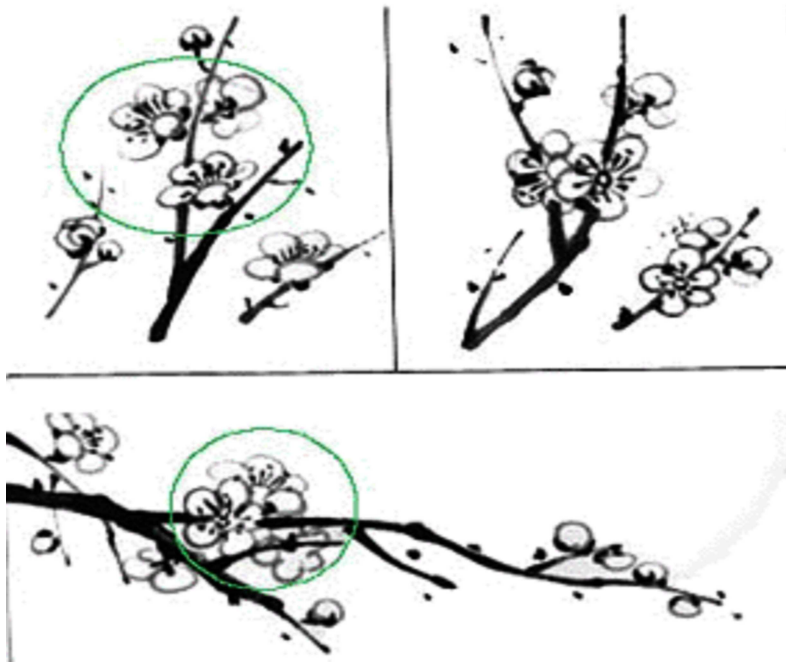
▲ 빛의 측면으로 거칠게 그린 예

▲ 윤곽선을 먼저 그린 예

<그림 10-3>



<그림 10-4>



<그림 10-5>



<그림 11-1>



<그림 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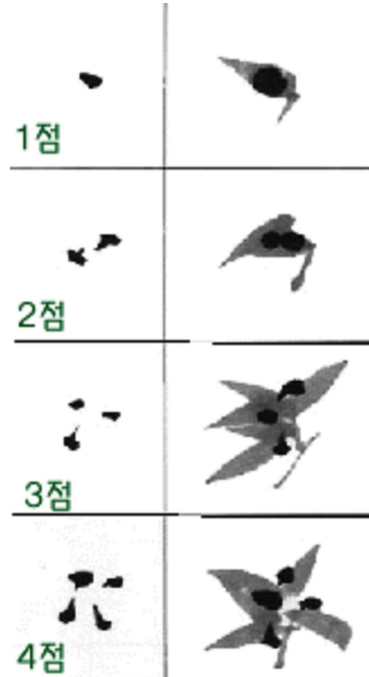
<그림 11-3>



<그림 11-4>



<그림 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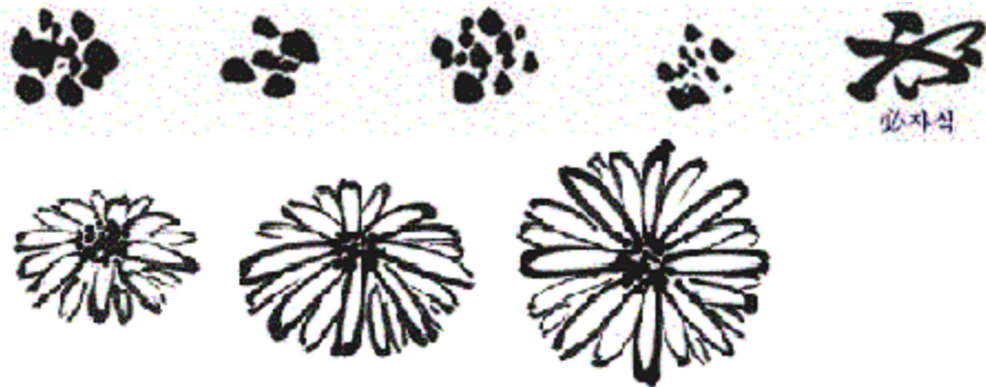
<그림 11-6>



<그림 11-7>



<그림 12-1>



<그림 12-2>



<그림 12-3>



<그림 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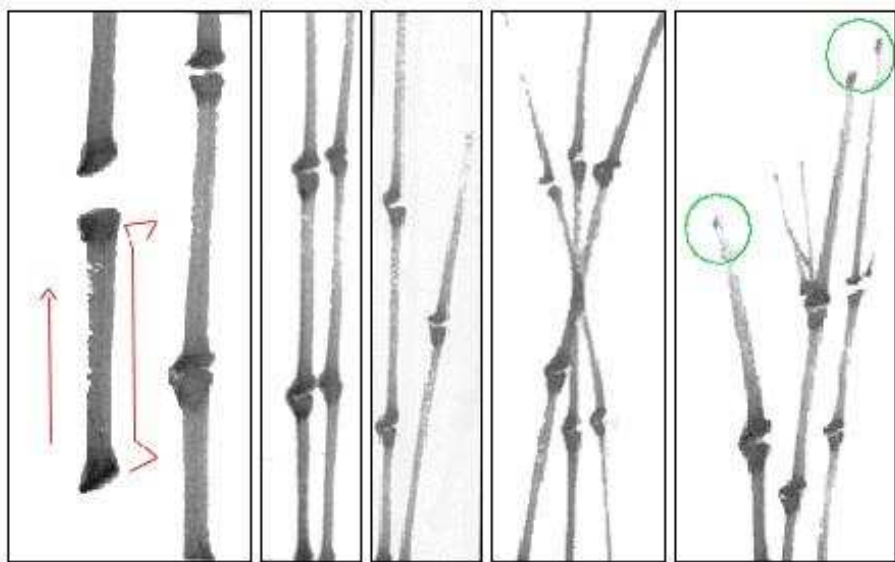
<그림 12-5>



<그림 12-6>



<그림 12-7>



- 그리는 순서 -

X

○

X

- 끊어진 줄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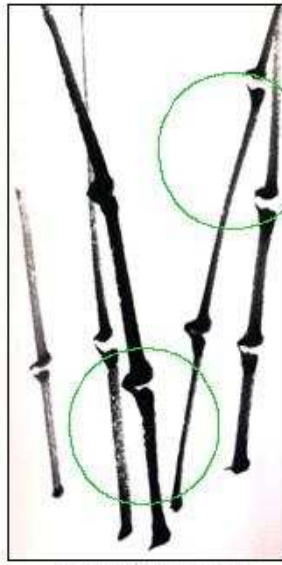
<그림 13-1>



- 성인 줄기 -



- 어린 줄기 -



- 성장고과백색 표현 -



<그림 13-3>

<그림 13-2>



<그림 13-4>



참새의 발모양(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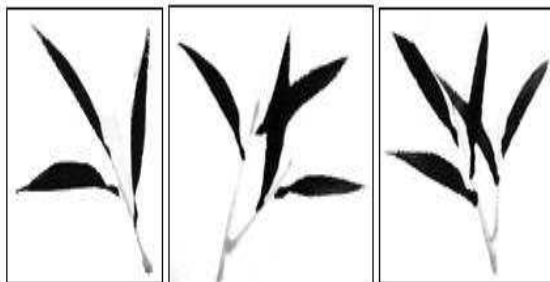
물고기의 꼬리모양(X)



사슴의 뿔모양(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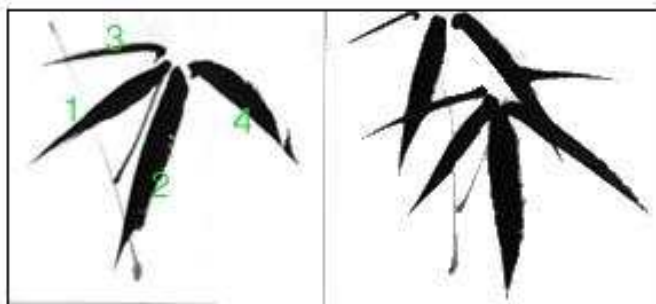


<그림 13-5>



- 날아오는 거러기 모양 -

<그림 13-6>



<그림 13-7>



<노근란>



<이정 - 목매도, 조선시대>



<김정희 - 부작난도, 조선시대>



< 학생작품 1 >



< 학생작품 2 >



< 학생작품 3 >



<학생작품 4 >



<학생작품 5 >